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종만
찬불가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바른 심성 가질 수 있습니다
12·13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 별역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은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은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은 없다.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8월 21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59호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오락가락' 稅政, 풀뿌리 기부 죽인다

조특법·세제 개편안에 복지·모금단체 '휘청'

앞으로는 사찰과 불교계 복지기관에 자비행을 위한 기부를 하고도 세금을 예전보다 더 내야할지 모른다.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 예정인 세재 개편안 때문이다. 이들 조세 정책은 고액 기부자와 중산층 기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신설된 제132조 2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대부분의 복지재단, 종교시설, 문화예술단체 해당)에 2500만원의 한도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당장 타격이 있는 사회 모금, 복지, 비영리 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환, 원혜영 의원도 2월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정부는 올해 8월 '2013년 세재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부금 세금 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기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고,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해 준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을 15%로 정해 이보다 소득세율이 높은 중상위 소득자들은 세금 감면액이 줄어들게 됐다. 만약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연봉 6000만원 소득자의 초과 기부금 세금 감면이 지금보다 적게는 9%에서 최대 23% 가량 줄어들게 된다. 조특법이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를 막았다면 세제개편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중산층 기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법정 기부만을 공제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단체를 통한 기부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런 상황이라면 종교를 기반한 풀뿌리 복지 · 기부단체들의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기부문화가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불교계 역시 이 같은 조세 행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이 활성화되면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을 해온 복지분야와 아름다움 동행의 출범으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공익모금분야, 동문들의 기부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조계종립 동국대 등 불교계 사립학교가 적지 않은 타격받기 때문이다.

실제 동국대 대외협력본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정책이 지속됐을 경우 기부금이 상당 부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국대뿐만 아니라 전체 사립학교 차원에서 반대 주장을 정부에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관계자는 "스님들은 소득세가 없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가불자들은 기부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계 및 복지 전문가들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특법과 세제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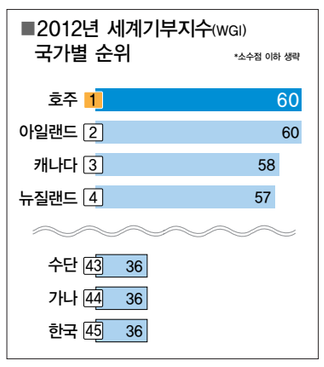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특법과 세법개편안은 '조삼모사' 식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기부금은 엄연히 다른 소득과 별개로 봐야 한다. 법을 개정해 지정 기부금을 한도액 적용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5월 열린 기부문화 활성화 세미나에서 조특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크게 확대해 왔고 그에 따라 기부금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기부금 공제를 크게 제한하는 이번 개편은 세수 확충 효과에 비해 오히려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대로 가면 그나마 싹을 틔웠던 한국의 기부문화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대형 기부 단체에 기부금이 집중될 경우 기부의 다양성과 건강성도 요원해진다. 이는 마치 대형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확충을 위해 반발이 많은 직접세 대신 기부금 등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며 "종교를 떠나 현재 복지단체들이 연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바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세특례제한법
종교·지정기부금 대상
2500만원 한도 규정
고액 기부자 지갑 닫아

2013세제개편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기부시 9~23% 稅 증가
중산층 기부까지 축소

사립학교·복지재단 해당
불교계에도 적지않은 영향
범종단 대응책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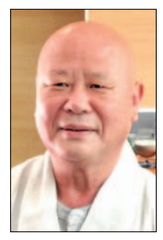
조계종 원장 선거 후보군 압축

자승·보선 스님 양강구도에 도영 스님 변수


자승 스님


보선 스님


도영 스님


대우 스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유력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지난 9월 12일 금오문도회의 추대로 출마 의사를 밝힌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제외하고는 예상된 인물들이었다. 보선 스님은 지난 8월 30일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고,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선거에 참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장산 벽련선원 대우 스님 역시 29, 32, 33대 선거에 이어 네 번째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불교광장의 후보로 나선 자승 스님이다. 실제 후보 추대를 위해 9월 16일 열린 불교광장 임시총회에만 16개 교구본사가 참석해 압도적인 세력을 보여줬다. 후보로 추대된 자승 스님은 당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락 연설을 했다.

자승 스님은 "오랜 시간 깊이 숙고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린 지금 지난 허물을 대신해 종단과 한국불교를 역사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다짐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며 "종단 중흥과 불교 발전의 발판을 확고하게 세우고 '조계종의 새 역사를 쓴 소임자'로 기억되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2면〉

이 같은 자승 스님의 출마선언에 전국선원수좌회 등 교계 일각의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정센터는 자승 스님의 재임을 반대하는 철야정진을 이어갈 것을 밝혔고, 상대 진영인 3자연대(舊무량 · 무차회 · 백상도량)은 자승 스님의 의혹을 해소하고 도덕성을 검증할 종책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는 것이 자승 스님 재임의 화두이기도 하다.

여기에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오문도회는 9월 12일 청주 법주사에서 '금오문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조실추대'를 위한 문중 모임을 갖고 문도회 차원에서 도영 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도영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지만 문중의 뜻이니 거역할 수가 없었다"며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행종풍 진작과 지계, 사회운동 등 한계를 느낀 부분이 적지 않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여론극복 자승 스님 과제
도영 스님 영향력 관심사

이번 도영 스님의 출마 결정이 선거 지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오문도회 소속인 불국사, 법주사, 금산사의 주요 소임자들은 대부분 현재 최대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과 보선 스님의 3자 연대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도회 측은 정치적인 해석을 경계했다. 금오 문도의 위상을 세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무원장 후보를 내놓자는 문중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도회 관계자는 "문도회의 어른들이 모이신 운영위원회에서 종단을 여법하게 이끌 총무원장 후보를 추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3개 사찰이 한 목소리로 후보를 지지할 것도 문중 어른들의 의견이었다. 이를 문도회 대중이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후보등록 소식은
붓다뉴스(hyunbulnews.com)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인단 누구?

전국 본사, 9월 25~29일 교구종회 개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가 9월 25~29일 연이어 개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는 9월 18일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 일정을 공고했다.

먼저 25일에는 직할교구(오후 2시 전통문화공연장)와 제2교구 용주사(오후 2시 관음전), 제3교구 신흥사(오후 1시 설법전), 제4교구 월정사(오후 2시 대법륜전), 제9교구 동화사(오후 3시 설법전), 제11교구 불국사(오후 2시 강원 대방), 제12교구 해인사(오후 2시 보경당), 제15교구 통도사(오후 2시 원통방), 제16교구 고운사(오후 3시 선체험관), 제21교구 송광사(오후 2시 사자루), 제23교구 관음사(오후 2시 선센터)가 교구종회를 연다.

이어 26일에는 제3교구 용주사(오후 2시 관음전), 제6교구 마곡사(오후 2시 연화당), 제18교구 백양사(오후 2시 교육관), 제24교구 선운사(오후 1시 회의실), 제25교구 봉선사(오후 2시 청풍루)가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제5교구 법주사(오후 2시 수련원)와 제19교구 화엄사(12시30분 화엄원), 28일에는 제8교구 직지사(오후 1시 설법전)와 제14교구 범어사(오후 3시 보제루) 제17교구 금산사(오후 4시 전북불교회관)가 교구종회를 연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7교구 수덕사(오후 1시 30분 심연당)와 제10교구 은해사(오후 2시 도선당), 제13교구 쌍계사(오후 2시 설선당), 제22교구 대흥사(오후 2시 만월당)에서 교구종회가 열린다.

신중일 기자



'마음껏 사랑하세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9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음껏 사랑하라'를 슬로건으로 '내려놓기', '어울림', '바라는 마음', '나누리' 네 가지 테마로 축제의 장을 펼쳤다. 사진은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 자승 스님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행사 개막식에서 떡을 절단하는 장면.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무명의 작용기제는

초원의 샘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아

막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생애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을 둘러싼 모든 현상들을 실제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개체적 자아로서의 당신과 전체적 자아로서의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단순히 이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알아차리려면 무엇이 필요할 까요?

샘의 물줄기를 손으로 틀어막거나 돌로 눌러서 막으려 한다면, 몇 초만에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끔 명상 중에 올라오는 강렬한 생각의 흐름을 막아보려 한다하더라도 실패할 것이고, 정신적인 문제마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접근 방법은 생각들이 어떤 것도 남아 있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애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의 수가 많더라도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방되는지 않다면 생각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행자가 기차 창밖으로 내다보는 마을이나 풍경이 기차를 느려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풍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상할 때 어떻게 생각을 봐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禪 뮤직 비디오'를 아시나요

美 현각 스님, 인터넷에 'Mirror of zen' 공개

선가귀감

"비디오는 한국불교계에 대해 던지는 도전입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이 9월 9일 인터넷에 'Mirror of zen' (선가귀감) 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http://vimeo.com/73936096).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불교 포교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만든, 염불과 음악이 감각적으로 가미된 일종의 뮤직비디오다. 16분 길이의 영상에는 스님의 일상이 담겼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선 사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다. 독일 뮌헨에서 불이선원을 마련해 서양인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현각 스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참 고민한 결과다.

사람들에게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방편이 "14년 전에는 만행이라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비디오" 라고 말한 현각 스님은 "나를 부각 시키는 게 아니라 선승의 하루를 강조하는 것" 이라며 영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경계했다. 카메라가 뒤좇는 건 '현각' 이 아닌 '스님' 이라는 것이다.

물에 떨어진 낙엽을 비추며 시작 되는 영상은 '만 가지 법이 한 가지로 돌아가되, 그 한 가지 법은 무엇인가' 하고 뒤이어 나오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스님의 일상으로 대신한다. 낙엽귀근(落葉歸根), 잎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결국 불법은 순간과 찰나로 귀결된다는 것.



현각 스님이 새로운 포교방식으로 택한 비디오. 감각적 영상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깨어있음에 대한 선의 진리는 수천 년 전 부처님이 말한 그대로다.

16분 분량… 염불 · 음악 가미

감각적 영상에 일상을 담아

한국불교 '禪' 알리기 일조

해외 네티즌 반응도 뜨거워

동영상 속 현각 스님은 머리를 깎고 예불을 올리며, 사람들을 만나고 지하철에서 화두를 챙긴다. 길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종교학 교수와도 의견을 나눈다. 생각에 속지 않고 현재 깨어있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스님의 단순한 일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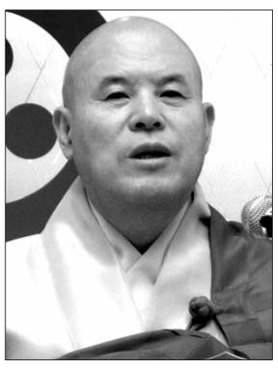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멋있다, 매력적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돈(Don)' 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숨이 멎을 정도로 영감이 살아있는 작품" 이라고 했다. '마이클' 이라는 아이디를 쓴 네티즌 또한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다. 16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며 "보는 내내 편안했고 감동적이었다" 는 감상을 전했다.

세피아 톤의 영상미 넘치는 이번 영상은 크리스틴 슈미트너라는 다큐멘터리 겸 CF 감독이 연출했다. 영상 속 흡사 랩처럼 들리는 염불은 '신묘장구대다라니' 로 중간에 삽입된 '옴마니반메훔' 과 함께 스님이 직접 염송했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새 역사 쓴 소임자 되도록 혼신"

자승 스님, 34대 총무원장 후보 추대 수락 입장 밝혀



불교광장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이 수락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승 스님은 9월 16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추대를 수락하고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된 소회에 대해 말했다.

자승 스님의 수락 연설 말머리는 사죄였다. "지난 4년 간의 성원과 경책을 뒤로하고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 고 밝힌 자승 스님은 "저의 출마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 줄 알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부대중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고 머리를 숙였다.

자승 스님은 '결자해지 기시자 당임기종' 이라는 고사를 인용하며 "오랜 시간 깊이 숙고해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기로 결단을 내린 지금 지난 허물을 대신해 종단과 한국불교를 역사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다짐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 종단 중흥과 불교 발전의 발판을 확고하게 세우고 '조계종의 새 역사를 쓴 소임자' 로 기억되도록 혼신을 다 하겠다" 고 천명했다.

이어 스님은 "지난 4년이 역사적 책임의 일단을 수행하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통해 '한국불교의 무한한 가능성' 을 재차 확인했다" 고 술회하며 "제가 또 다시 책임을 맡는다면 아쉬운 과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각 교구가 수행, 포교, 전법을 총괄하는 자치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종단과 사찰의 재정 투명화, 비구니 권익 및 참종권 확대 등도 심도있게 검토해 변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을 둘러싸고 세간에 뿌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자승 스님은 "그동안 오로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일념으로 여러 근거없는 낭성들에 묵묵히 대처하며 인욕했다" 며 "그러나 단언컨대 소납에게는 종도를 실망시킬 그 어떤 일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앞으로 종단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 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을 따로 받지 않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수좌회 농성 중단 산사로 돌아가다

조계사 정진단 16일 철수

'자승 스님 재임 포기 약속 이행' 을 촉구하며 단식묵언정진을 해 온 전국선원수좌회가 9월 16일 조계사 천막 정진단을 철수키로 했다.

전국선원수좌회대책위원회(위원장 석곡)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조계사 천막선원에 앉아 단식과 묵언정진으로 생사대사의 본분사를 물음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종단이 바로 설 수 있는가를 고뇌했다" 며 "이제 정의와 비판을 뒤로한 채, 시비의 대용을 접고 본분의 대기에 충실하기 위해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고 밝혔다.

수좌회는 "우리의 용맹정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라도 조계의 일탈에 준엄한 호법의 주장자를 준비할 것이고 두 눈 부릅뜨고 마의 종언과 원의 회생을 함께 지켜볼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종회의원 30명, 임시회 소집 요구

심우 스님 등 16일 서류 제출

심우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30명이 오는 9월 30일 제195차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최해달라는 골자의 종회 소집요구서를 16일 제출했다.

소집요구서에 따르면 이들 의원 스님들은 주요 안건으로 △제34대 총무원장 공명선거의 건 △총무원장, 장주 스님, 각원 스님 각서 의혹의 건 △적광 사미 폭행의 건 △신동아 9월호의 진상의 건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표 발의자인 심우 스님과 도정 스님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의 후보 수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심우 스님 등 30명의 종회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자승 스님은 총무원장 사퇴 후 선거에 임할 것 △밀약서, 도박장 개설 등 모든 의혹을 밝힐 것 △종단의 위상 실추를 통감하고 발로참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번 종회 개최의 배경과 서명 인원의 계파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다.

종회 소집에 서명한 30명 스님들의 계파를 묻는 질문에 심우 스님은 "계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계파에 소속된 사람도 있다" 고 답했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심우 스님은 "향후 개최 여부와 일정은 모두 의장단에 일임했다" 며 "정치색을 떠나서 봐달라" 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2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개강 :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 (명상센터 3층)
042) 255-0734~5

템플스테이의 공익·문화적 가치는?

문화사업단, 10월 2일 세미나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레저문화, 힐링 문화로써의 가치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과 주호영, 정세균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가치평가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템플스테이 사회공익적 가치평가와 발전 방향'을, 이승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힐링 프로그램으로써 템플스테이 경쟁력 진단과 과제', 고동우 대구대 교수가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서 템플스테이 사회적 가치평가'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또한 강도형 서울의대 정신과 학교실 부교수,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 대해 단장 정산 스님은 "지난 10년동안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품격 전통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했다"며 "이제 문화융성을 이끌고 국민행복위해 템플스테이의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는 지금 형형색색 가을 축제

2013 가을 행사 풍성
불자들 발길 이끈다

가을을 맞아 불교계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 준비로 분주하다. 이번 축제에서는 예년보다 다채로운 전시, 공연, 세미나 등이 마련돼 가을을 한층 풍요롭게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2~20일 오대산 일대에서 '제10회 오대산문화축전'을 성대히 연다. '생명·명상·치유의 한마당'으로 열리는 이번 축전에서는 국내외 초청인사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등 15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 수륙대재 및 생명살림 방생대법회를 시작으로 월정사 적광전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와 이운식이 열린다. 18일에는 한국선학회 주최 하에 '월정사 8각9층 석탑과 불교탑돌이'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19일에는 강원지역 불교합창단이 참가하는 제10회 찬불가 합창제가 열리며 20일에는 제7회 승가학인 법고대회 등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탄허대종사 유묵특별전, 민화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또한 진행된다. (033)339-6800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천년의기다림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제13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삼랑성역사문화축제에는 첫날인 5일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비롯해 한영애, 안치환, 웅산, 이루마 등이 나서는 가을음악회가 개최된다. 6일에는 다례재와 영산재가, 12일에는 지역문화한마당, 13일 밴드한마당 및 마당극이 열려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전개된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국내 중견사진작가들의 전등사 사진전 및 고기와 그림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032)937-0125


지난해 강화 전등사에서 열린 제12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의 산사 음악회 모습

2013 가을 불교계 축제 현황

축 제 명	장 소	일 시	전화번호
제14회 구절초 꽃축제	세종 영평사	9월 28일	(044)857-1854
제59회 백제문화제	부여 능산리사지	9월 28일~10월 6일	(041)635-6980
제2회 괘불재	부안 내소사	10월 5일	(063)581-3082
제13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강화 전등사	10월 5일~13일	(032)937-0125
오색단풍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10월 5일	(054)672-1446
장기기증 생명음악회	남양주 불암사	10월 5일	(02)734-8050
2013 승시축제	대구 동화사	10월 11일~14일	(053)986-9575
제10회 오대산문화축전	평창 월정사	10월 12일~20일	(033)339-6800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10월 5일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을 주제로 두 번째 괘불재(掛佛齋)를 연다. 오후 1시 마당으로 모시는 '괘불이운 의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는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063)581-3082

이와 함께 **대구 동화사(주지 성문)**는 10월 11~14일 동화사 일대에서 2013팔공산 승시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서는 사명대사 승장행렬, 사경대회, 승시 힐링콘서트, 제2회 승가법고대회, 그림자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053)986-9575

부여와 공주 일대에서는 '대향로의 세계'를 주제로 **제59회 백제문화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린다. 9월 27일 충화면 천등산에서의 백제혼불 채화를 시작으로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된 능산리사지 일대에서 백제대왕제, 수륙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백제금동대향로 발굴 20주년을 맞아 백마강 수상무대에 향로를 중심으로 20여종의 유등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펼쳐진다. (041)635-6980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는 9월 28일부터 '제14회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를 연다. 축제일 저녁 7시에는 영평사에서 산사음악회가 마련돼 가수 조관우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044)857-1854 또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도 10월 5일 저녁 7시 경내에서 '산사음악회-오색단풍으로 노래하리'를 개최한다. 청량사 산사음악회에는 소리꾼 장사익 씨와 가수 BMK 등이 출연한다. (054)672-1446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도 10월 5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을 위한 생명음악회'를 연다. 생명음악회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인 아웃사이더, 현철, 소찬휘 등이 나서 한 가을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02)734-805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의례 강화위해 스님들 '절차탁마'

조계종 교육원, '불교상용의례' 하반기 연수 시행


조계종 교육원은 9월 9일 한국불교의례전승원에서 염불지도교수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연수 교육을 시행했다.

상용의례 교육 강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가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9월 9일(월) 한국불교의례전승원에서 2013년도 사찰승가대학의 필수교과목인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연수에는 염불교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동주 스님과 위원인 화암 스님, 법안 스님이 직접 지도를 맡았다.

연수 참가자로는 사찰승가대학의 〈불교상용의례Ⅱ〉를 직접 지도한 불교상용의례 지도교수들과 지난해 선발돼 전국 사찰승가대학과 직할교구 및 서울·경기지역 사찰의 스님을 지도했던 염불지도교수 스님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연수에 대해 교육원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교의례를 지도하는 교수스님들이 합동으로 탁마하는 최초의 자리였다"면서 향후 다양한 일정으로 불교상용의례지도교육자 연수를 기획해 학인 스님뿐만 아니라 전국본말사의 염불소임을 맡은 스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은 2012년부터 염불교육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염불지도교수를 선발하고 연수를 거친 후, 각급 교육기관에 종단에서 결정한 한글 〈반야심경〉과 〈예불문〉을 직접 지도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전통불교문화원 명칭 '한국문화연수원' 변경

조계종 연수시설인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이 명칭을 변경한다.

조계종은 9월 11일 종무회의를 열고 '전통불교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일부 개정해 명칭 변경과 본부장 직책을 연수원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불교문화원은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대중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포석을 바탕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명칭 변경을 통해 불교문화의 체험과 연수를 통한 '한국 전통 불교문화의 대중화, 세계화'에 기여하겠다는 본래 건립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중일 기자

"부루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없다니…"

무진장 스님 영결·다비식 13일 부산 범어사서 엄수

평생을 부처님의 계율에 따라 검소하게 살며, 포교활동에 한 평생을 전념했던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9월 13일 부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명종 5타로 시작한 이날 영결식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명선·도문·혜승·법흥·월파·종하·월탄·정관·암도·세민·지성·대원·성우·활안·동춘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종회의장 향적 스님, 호계원장 일면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 전 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이날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영결사에서 "밤색 가사에 깃든 스님을 뵈면 확연히 부처의 종지를 보는 듯했고 스님의 사자후를 듣게 되면 줄탁의 도를 이루는 기쁨에 젖었다"며 "청정무애하고 자재한 법신의 경계를 보여 주신 두타행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00여 추모 대중 운집 애도
49재 10월 27일 조계사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종단의 3대 사업의 하나인 포교의 기틀을 만드시고, 40년을 하루같이 일념으로 매진하신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없으니 가슴 깊이 아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지난 9월 9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의원 무진장 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9월 13일 부산 범어사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과 다비식에는 2000여 대중이 운집해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사진은 무진장 스님의 다비식 거화의식 모습.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조사에서 "포교원장으로 계시면서 현대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스님은 시정이 산문이었고 청법대중이 선지식이었고 고통 받는 중생을 통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을 배운 눈밝은 종장이었다"고 추도했다.

영결식에 이어 이운행렬은 인로왕번을 선두로 불이문-천왕문-일주문을 거쳐 경내를 참배한 후 경내에 마련된 다비장에서 거화의식이 진행됐다. 한편, 무진장 스님의 초재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으며, 5재는 10월 13일 제주 반야사, 49재는 10월 27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박경수 부산 지사장





일 주 문



일제시대 군산불교 주제 강연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은 9월 24일 군산대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군산 불교' 를 주제로 강연한다.



상담센터 수탁 협약식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조계종 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이사장 경희 스님은 9월 6일 대구수성구청에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 · 수탁 협약식을 개최했다.

국제선센터, 양천구 힐링캠프로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9월 16일 양천구청(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영천울트라 마라톤 대회 성료



'제1회 영천 별빛 울트라 마라톤 대회' 가 9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경북 영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구불교방송이 주최하고 한국불자마라톤 대구경북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비슬산 대견사 중창 상량식



대구 비슬산 대견사 중창 상량식이 9월 14일 봉행됐다. 이날 상량식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김문오 달성군수, 이종진 국회의원, 우동기 교육감 등 7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힐링라이프, 상처치유 아이템"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 스님



사마타, 비파사나 등 3단계과정
스님들 힐러과정 이수후 활동가능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불교에는 168개 종단에 5만 승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계종이외에는 승려 교육기관이 튼실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 시대에 맞는 포교아이템이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 한국불교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현시대에 맞는 포교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힐링라이프(Healing Life)'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기도 연천 오봉사 주지 군맹 스님〈사진〉은 '힐링' 이란 치유이며 '라이프' 는 인생이란 말이니 힐링라이프란 인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한다.

몸과 마음이 병 들듯 인생도 병이 드는데 몸과 마음은 의학에 의존해야 하지만, 인생이 병 들면 종교에 의지해야 한다는게 군맹 스님의 지론이다. 그래서 힐링라이프는 종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상처받고 갈등하는 인생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생이 병 들었다는 것은 업(생각과 말과 행동)이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업장(業障)이 두터워진 상태를 말하지요. 불교가 제시한 수행법중 바로 팔정도가 이 신구의 삼업을 닦는 비결이라는 것을 공부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이 팔정도가 육바라밀로 변했으며, 또 이것이 오문(五門)으로 변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문에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따오고 육바라밀에서 다나바라밀을 갖고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과정은 우선 진단과 치유단계서 사마타란 테마를 갖고 한시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떠올랐던 번뇌망상들을 바짐없이 노트에 기록한다. 그리고 비파사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라이프닥터와 상담한다. 마지막 다나바라밀 단계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힐링라이프를 진행하는 힐러에는 주치유사인 라이프닥터와 보조치유사인 라이프코치가 있다. 라이프코치 양성과정은 3개월이고, 주치유사인 라이프닥터 양성과정은 3년이다.

"라이프코치의 3개월과정만 마쳐도, 우선 스님들이 각자 사찰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지만 3개월 과정을 더 추가해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와 불교의 기초교리, 발심수행장 등을 통해 불교의 전반적 지식을 더 공부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031)834-2140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차문화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 나갈 것"

문화융성위원 위촉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차인으로서 전통문화 공인 최초
차문화 진흥 연구, 정책 제시 다짐

"전통문화의 일부로 차문화를 인정한 첫 사례이기에 차인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한국 전통문화로서 현대인들의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차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생 차를 연구해 온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사진〉이 9월 5일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문화 현안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문화가치확산 등 4개 분야에 걸쳐 위촉됐다. 전통문화분야 전문위원회는 10명으로 전통차 분야에서는 최초다.

박동춘 소장은 "1970년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차는 다례를 위주로 알려졌다. 이제는 정신문화로서 대중화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차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차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대중들이 녹차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립에 나선 박 소장은 제다법에서 열탕법을 강조했다. 뜨거운 물을 부음으로서 차의 독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우리 차가 어떻게 들어왔고, 왜 마셨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나하나 바꿔야 차문화 중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또 "우리 차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사람간의 소통을 돕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등 정신문화를 향상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돼 온 점을 연구해야 한다"며 "차문화 속에 담긴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융성위원회 전통문화 전문위원회에는 불자인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지역문화), 김종록 소설가(문학)을 비롯해 김석종 경향신문 문화에디터(언론), 김영석 한복디자이너(한복), 손혜원 홍익대 교수(공예), 송혜진 숙명여대 교수(국악), 용호선 강원일보 논설위원(언론),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연구센터장(문화재), 황두진 건축사(한옥) 등이 위촉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울 흥천사, '삼각선원' 개원식



서울 성북구 흥천사(주지 정념)는 9월 14일 도심 선방인 '삼각선원(三角禪院)' 을 개원했다.

삼각선원은 150평 대지에 건평 65평 한옥 두 채 규모다. 선원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힐링 장소로 이용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속초 신흥사 조실 오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법등 스님, 보선 스님 등 스님들과 이수성 前 국무총리,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팝핀현준 · 박애리 부부 생명나눔홍보대사



비보이 팝핀 현준과 아내인 국악인 박애리 씨가 생명나눔 홍보에 나선다. 팝핀 현준 부부는 9월 16일 생명나눔실천본부 법인회의실에서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박애리 씨는 "8월 11일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만해문예대상을 수상한 안숙선 명창을 축하하러 들렀다 캠페인 중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인연을 맺게 됐다"며 "만해실천대상을 수상한 일면 스님의 활동에 공감한 남편도 함께 서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목탁 스님 미얀마 돕기 캠페인 성금 전달



미얀마문화원 원장 목탁 스님은 9월 16일 한남동 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해 흘라잉 주한 미얀마대사를 접견하고 미얀마돕기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미얀마문화원은 불자들의 성금을 모아 미얀마 오지 우물파기, 빈민가 학교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흘라잉 주한 미얀마대사의 모교인 만달레이 지역 마다야 하이스쿨이 재정난으로 학교 수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것이다.

노덕현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 교 조 계 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 무 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 무 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발마사지 2천명…죽는 날까지 봉사할 것"

조계종자원봉사단 '정진회' 팀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 수상





15년 넘게 장애인들을 위해 매주 금요일 발마사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정진회 팀원들. 사진 왼쪽부터 장주선(61) · 이제숙(59) · 길춘자(60) · 강부선(65) 씨〈좌〉. 정진회는 9월 9일 '2013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맨 앞이 정진회 팀장 김용철(58) 씨〈우〉.

"15년 넘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마사지를 했어요. 처음에 한 3년 동안은 먼 곳까지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4~5년이 지나고나니 삶의 일부가 됐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부설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원경) 소속 봉사팀인 정진회가 9월 9일 '2013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 복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용철 · 이제숙 · 장주선 · 길춘자 · 강부선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이들은 1997년 간병자원봉사교육과 2001년 발반사요법자원봉사교육 수료 후 장애아동 및 장애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15년 10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봉사를 이어온 팀이다.

50대 중반에서 60대로 구성돼 있는 정진회는 매주 1회 씩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서 간병 및 목욕봉사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발마사지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진회팀 회원들은 모두 경기도 양평, 안양 등 대중교통으로 1~2시간 걸리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매주 금요일 아침 일찍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 모여 봉사활동을 한다. 하루 동안 보통 10명 정도의 복지관 이용자들이 정진회팀의 도움을 받는다.

15년 동안 정진회팀의 손을 거쳐 간 수혜자들은 어림잡아 2000여 명 정도다. 한 명당 대개 30분 정도 걸리니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만만치 않지만, 이용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경애(51 · 여)씨는 "하반신이 불편한데 3개월 동안 매주 1회 발마사지를 받으니 혈액순환도 되고 좋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족처럼 친절하게 이야기도 잘 들어줘서 좋다"며 "답례로 선물을 드려도 봉사자분들이 받을 수 없다며 사양한다.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마음 같아서는 서비스를 더 받고 싶지만 대기자가 많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정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 '발사랑'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2년 정도 기다려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설명했다.

9월 13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이용자들은 정진회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강부선(65) 씨는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봉사를 한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금요일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용철 정진회 팀장은 1998년 건강의 문제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 팀장은 "봉사를 통해 타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또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울점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며 "부석사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영담 스님께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처음시작이 어렵지 4~5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다.

어떤 일을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일이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궂은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진회 회원들은 '발마사지' 봉사가 곧 수행이고 기쁨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는 계속 할 생각"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한 정진회는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난치병어린이지원 모금행사'에 매년 함께 동참하며, 적게는 7만원 많게는 30여 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1998년부터 현재가지 총 4차례 강릉, 문산지역 등 국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봉사활동과 2005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지역 해외 구호봉사, 2007년 서해안 유류피해 복구활동에 앞장서서 적극참여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 수 있는 간병, 목욕, 발마사지 등의 노력 봉사활동을 꾸준히 개하며, 일회성 · 이벤트성 봉사활동이 만연한 요즘,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우리 학교 건강 도움이로 출동!"

자양복지관, 우리학교건강 구조대 실시

"친구에게 기름진 음식을 덜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할 거예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한국암웨이의 후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으로 8월 19 · 29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코칭 프로그램인 '튼튼해가 떴습니다!'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아동들이 학급 내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다.

'우리학교 건강 구조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또래 아동에 비해 키가 작거나 왜소한 아동, 과체중인 아동, 편식이 심한 아동 등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는 활동이 진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아동과 부모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활동지를 제작하는 조별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활동지 제작 후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해결방안을 조언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학교 내에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19 · 29일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지킴이 활동을 실시했다. 참여아동들이 활동지를 만들어 학급 내 건강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

8월 활동에 참여한 신OO 아동은 "친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엄마와 이야기하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도 알게 되었고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02)458-6796

이나은 기자

철산복지관, 희망백일장 성료

문해(文解) 학습자 250명 참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은 광명시와 함께 9월 6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13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희망백일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기대 광명시장, 정용연 광명시의회 의장 등 주요 내빈과 광명시 문해교육 9개 기관의 문해 학습자 250명이 참석해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했다.

희망백일장은 시립새싹어린이집의 6 · 7세 원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나만의 필통 만들기 체험, 문해 골든벨 O, X 퀴즈, 공동체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철산복지관은 입상자 19명에게 시상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은 어르신들에게 학습 동기부여를 했다.

철산복지관은 "희망백일장이 배움의 기회가 적어 학습 소외계층이 된 문해 학습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꽃피는 평생학습 실천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617-0410

이나은 기자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광명시와 함께 '2013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희망백일장'을 개최했다.

복지 · 나눔 소식

홍천군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식 캠페인을 펼치는 자원봉사자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원경)은 9월 11일 홍천읍 일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 장애 ·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실시됐다.

이날 지역복지팀 직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홍천읍 일대를 돌며 시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지역장애인의 현 주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작품전시회

9월 27일까지, 서울 메트로 미술관서 100여점 선보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9월 23~27일까지 서울 혜화역 메트로 미술관에서 '어르신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글서예, 동양화, 수채화, 유화, 디지털카메라 등 복지관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갈고 닦은 솜씨와 열정이 담긴 작품 100여점이 선보여진다.

관장 정관 스님은 "1년 동안 갈고 닦은 재능의 결과인 이번 작품들은 어르신들의 자랑스러운 흔적이고 오래도록 남을 추억"이라며 "복지관에서만 진행되던 기존과 달리 젊은이들이 많은 혜화역에서 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노인문화를 알려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송산실버문화센터, 신노년운동페스티벌 열어

2천여 주민 참석…미니올림픽, 다도체험 참가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9월 7일 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에서 노인복지기금마사업의 일환으로 '新노년문화운동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이번 新노년문화운동페스티벌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처하는 신 노년문화운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2000여 주민이 함께 참여한 이날 新노년문화운동페스티벌에서는 가훈써드리기, 페이스페인팅, 노인자살예방상담, 미니올림픽, 프리허그 등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의정부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한마당을 개최해 장애체험, 건강부스, 상담, 다도체험,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송산실버문화센터는 9월 7일 의정부시청앞 야외무대에서 노인복지기금마사업의 일환으로 '新노년문화운동페스티벌'을 실시했다.

이밖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의 합창단, 요들, 오카리나 및 부용고등학교 '무아지경', 송현고등학교 '심금', 송산실버문화센터 노래교실, 경기민요, 포크댄스, 실버밴드 등 10개 팀이 다양한 공연을 실시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031)852-2595

이나은 기자

2014 삼보불교카렌다 특별가 보급 (기간 : 9.5 ~ 10.31 까지)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카렌다들을 특별가로 보급합니다.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법음이 깃든 산사



구도자의 길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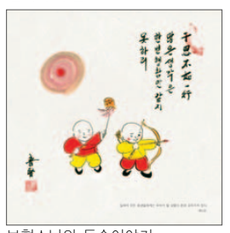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천진동자 1월



천진동자 2월



천진동자 3월



천진동자 4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천진동자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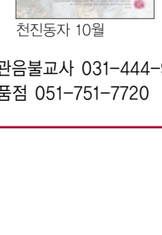
천진동자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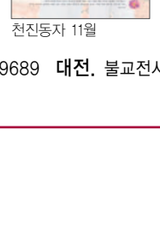
천진동자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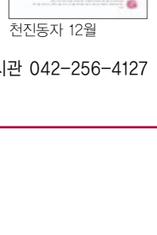
천진동자 8월



천진동자 10월



천진동자 11월



천진동자 12월

삼보불교달력 전국 지역 가맹점

서울. 다보사 02-816-0600, 불심원 02-725-0250, 성불사 02-735-3543, 정릉만물 02-941-4247 경기. 동두천 명성불교사 031-862-2792, 수원 종로불교사 031-254-1080, 안양 관음불교사 031-444-9689 대전. 불교전시관 042-256-4127
전남. 구례 문화불교사 061-783-2627, 순천 영태불교사 061-753-4304, 해남 불교용품 061-532-8604 광주. 불교서원 062-226-3056, 영태불교 062-269-2584 부산. 반야불교용품점 051-751-7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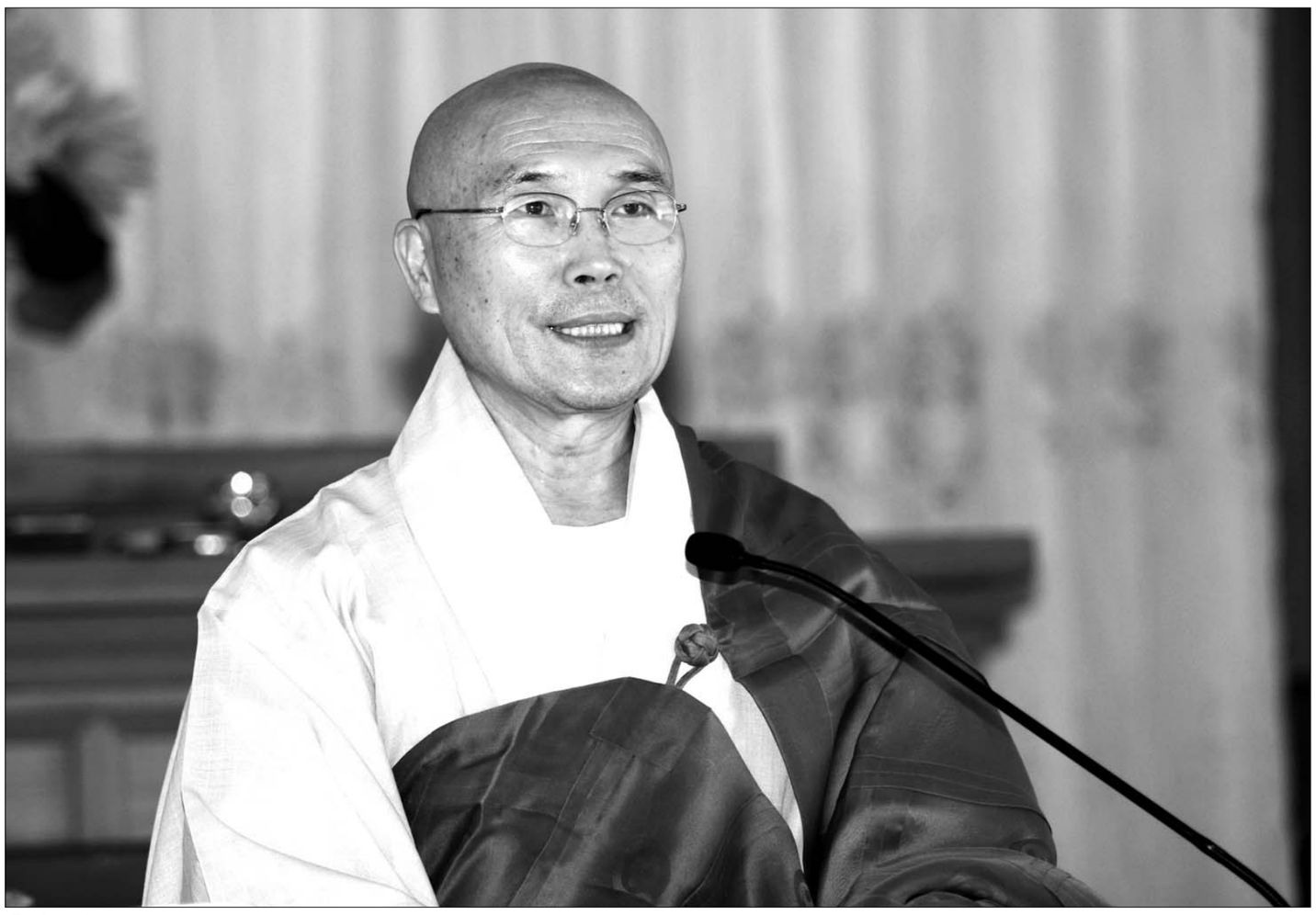
“좋게 느끼고 표현할 때 행복도 찾아와”

동사섭센터 정기 강좌 ‘느낌미학’

용타 스님(행복마을 이사장)

스님은 행복을 좋은 느낌 상태라고 단언했다. 순간순간 변하는 느낌을 붙잡기보다 흘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왔던 우리들에게 스님은 그러한 느낌을 꼭 붙들어 보라고 이야기한다. 느끼고 감지하고 누리면서 삶을 풍족하게 가꾸어보라는 것이다. 매달 동사섭센터에서 열리는 스님의 행복 강좌. 행복의 본질이 느낌에 있다는 스님의 말을 경청해본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용타스님은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근본불교, 대승불교, 선불교를 통합한 영성 프로그램인 동사섭을 계발, 운영해왔다. 현재 재단법인 행복마을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이다. 김제 귀신사와 미국 삼보사 회주로 있으며, 저서로는 〈마음알기 다루기 나누기〉, 〈십분해탈〉 등이 있다.

느낌이 삶을 아름답게 한다

오늘 주제는 느낌미학입니다. 학이란 말은 생각체계이기에 미학(美學)이란 말을 직역하면 아름다움의 생각체계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되도록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좋으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느낌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있는 이 느낌을 삶속에 어떻게 스며들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미학이란 느낌에 유념함으로써 삶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고(지), 가슴으로 느끼고(정), 손발로 산다(의)고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세 부분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은 가슴, 느낌활용을 잘해야 아름다워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느낌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은 단연코 행복입니다. 행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행복이란 쉽고 구체적인 개념일줄 알았는데,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답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행복에 대해 꾸준히 사유하다보면 마지막에 ‘본질은 이거구나’ 하고 생각되는 종착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은 좋은 느낌입니다. 좋은 기분, 좋은 정서가 곧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느낌이 없는 순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순간, 느낌을 못 느끼는 순간은 있을지 모르나 느낌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체인한,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생각, 사고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죽 존재합니다. 결국 사고와 느낌 중 어느 것이 본질에 가깝냐하고 묻는다면 단연 느낌이 더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낌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심(修心), 수행을 해야 합니다. 수행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높은 차원의 느낌에서 살게 됩니다. 수준이 마이너스 권에 있던 사람은 플러스 권으로 올라가고, 플러스 권에 있던 이는 쌍플러스 권으로, 쌍플러스 권에 있던 이는 깨닫는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 “느낌에 유념하면
> 서로의 감정 수준 높이고
> 우리 삶을 아름답게해
>
> 느낌에도 수준이 있는데
>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 수심(修心) 즉 수행해야”

이렇듯 느낌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불행이 0, 행복이 꼭대기를 차지하는 행복 수직 그래프가 있다고 한다면 느낌에 따라 행복눈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느낌 수위가 올라가있으면 최고로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어느 선을 넘으면 행복하다’ 하는 절대적 수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 그만큼의 행복이요, 불행입니다. 아래서 보면 행복, 위에서 보면 불행인거죠. 행복일 수도,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행복으로 인지할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법입니다. 어떤 쪽을 택하실 건가요. 치통으로 고통스러워도 송장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고통도 참을만해집니다. 그 만큼의 행복이고 그 만큼의 불행입니다. 다만 평소에는 전부가 행복이라고 여기십시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느낌에 공감해야

마음은 정보층, 의견층, 느낌층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보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백두산에 다녀왔다 가정하고 그 감상을 말한다고 해봅시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가겠습니까, 이야기 내용인 여행지 쪽에 흥미가 생기겠습니까. 대개는 백두산 이란 여행지, 정보층에 관심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와 의견은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것 가지고는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길을 갈 때는 왼쪽으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 의견을 듣는 사람의 관심은 말한 사람에게 갈까요, 아님 길을 떠올리게 될까요. 당연히 길을 머릿속으로 그리겠죠.

이렇듯 정보나 의견을 나눌 때는 말하는 사람 쪽으로 관심이 잘 안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과는 깊게 친해지지 못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아는 지인 정도나 되지 친한 친구는 못 되는 거죠. 그런데 느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두산 보고 받은 감동을 표현하면 듣는 이의 관심은 처음에는 백두산 쪽으로 가겠지만 마지막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정보나 의견에서 그 사람을 찾기는 힘드니까요. 정보와 의견은 사람 밖에 있지만 느낌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을 나누는 것이 참 만남입니다.

느낌을 안다는 것은 행복, 불행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어준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느낌을 알아채서 ‘피곤해보인다’ 고 다독거려주면 상대방이 행복해질까요 아닐까요. 느낌을 적절하게 느껴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찬란하게 하는데 제법, 대단히,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느낌살이 하는 법

그럼 느낌생활, 다른 말로 느낌살이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첫째로 자신의 느낌과 타인의 느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인들의 안부를 꾸준히 묻는 태도를 지니십시오. 저 사람이 무슨 일로 고민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더라도 그런 에너지는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느낌을 감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라봐준다는 것 자체가 정화입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아준다면 느낌의 입자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그를 읽어주지 않고 팽개쳐두면 거친 상태가 되어 우리 스스로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느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적절히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것입니다. 울적함이나 마음의 암울함을 표현하면 당연히 주변 분위기도 함께 무거워지겠죠. 그러나 그 무거움은 좋은 무거움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함으로써 더 친밀해지니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됐든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느낌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좋다고 여기는 것은 스스로만 하고 있으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강요하면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고 신념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타인의 느낌에 반응할 줄 안다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남자가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채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자살결심을 접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죽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속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느낌미학에 있어 백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느낌 수준을 고양시켜야 합니다. 느낌을 나누면서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훌륭한 공동체는 감정을 서로 잘 나누면서 감정의 평균 수준을 높입니다. 평균 느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심(修心),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악수 한 번으로 만감이 교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타인의 느낌에 얼마나 관심을 두십니까. 자신의 느낌을 얼마나 감지하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만 기억한다면 느낌살이에 대한 답 90%이상을 해결한 셈이 됩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중 개강
매주 (월 ·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수행으로써 능히 만족함을 알았으며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등의 번뇌심을 떨쳐버리고 언제나 불법의 희열에 젖어 자유자재한 지혜를 얻고 중생구제와 서방 극락정토를 장엄할 본원을 성취하셨다.
-불설무량수경 中에서

삼광사 극락전 불상 봉안 · 낙성 법요식에 초청합니다.

삼광사가 효(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선망부모조상님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기 위해
불사 중인 극락전 낙성식을 본 종단의 김도용 종정예하를 증명대법주로, 장도정 총무원장스님을 모시고
원로대덕스님과 각계각층의 귀빈들을 초청한 가운데 2013년 10월 4일 봉행하오니
경사스러운 법연의 자리에 다함께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부 극락전 불상 봉안식
2013년 10월 4일 오전10시 극락전

2부 극락전 낙성 법요식
2013년 10월 4일 오전11시 대웅보전 앞마당

· 주 지 김무원 스님
· 총 무 박거홍 스님 · 교 무 박도선 스님 · 재 무 손형선 스님 · 노 전 김경필 스님
· 신도회장 이헌승 ·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 재무위원 윤태용 안승진 신명옥 · 사업위원 김성춘 · 기획위원 김명호
· 복지위원 이정복 · 홍보위원 김영수 · 문화위원 김규옥
· 고문 · 지도위원 · 지회 · 신행단체 각 간부 및 사부대중 합장

전주서 만나는 한암·탄허 스님 선필

禪筆

전주박물관, '한국 큰 스님의 글씨'…9월 10일~10월 3일 특별기획전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인 한암 스님과 탄허 스님의 유묵을 전주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은 9월 10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주박물관 문화체험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한국 큰 스님의 글씨- 월정사의 한암(漢岩)과 탄허(呑虛)' 를 개최한다.

이 전시에는 평창 월정사, 대전 자광사,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에서 대여한 서예작품, 편지, 유품 등 80여 점이 소개된다.

탄허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특별전은 탄허 스님의 고향인 김제 만경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탄허 스님의 삶과 학문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에서는 한암 스님(1876~1951)과 탄허 스님(1913~1983)의 글씨를 중심으로 불교의 경전과 깨달음, 고전의 경구, 삶의 자세 등 다양한 내용이 전시된다. 스님들이 유연하게 쓴 한문 글씨뿐만 아니라 잔잔한 한글 글씨가 갖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특히 편지글에서는 글씨를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근현대 변혁의 시대를 살다간 두 스님은 전통적인 유학과 고전을 수학하며 성장했으며 스님들의 글씨는 넓은 의미의 선필(禪筆)과 전통성을 기반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하기도 한 한암 스님은 선승이자 학승으로 참선을 중시했지만 계율을 지키고 경전을 연구하고 학문

필묵·유품 등 80여점 선보여

수행·학문적 깊이 여실히 드러나

하는 자세를 갖춰야만 올바른 수행,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평생 이를 실천했다.

한암 스님의 학식과 인품의 면모를 보여주듯 글씨풍은 단정하고 정적인 필치로 격조높은 선비의 글씨를 보는 듯 하다. 스님이 남긴 편지글은 근대 국한문, 한글 글씨의 중요한 자료이다.

한암 스님의 수제자인 탄허 스님은 근현대 우리나라 불교계를 이끈 최고의 학승이며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유불도(儒佛道) 삼교에 능통한 대석학이었다. 늘 대중과 가까이 했던 스님은 필묵을 즐겨 생전에 많은 글씨를 남겼는데 대부분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에게 남긴 것으로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 담겨있다. 탄허 스님의 글씨는 한암 스님의 글씨와는 달리 활달하고 기세가 빠른 필치가 특징으로 마음을 다해 짓고 쓴 섬세한 글씨에서는 스님의 학문적 깊이가 드러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시민들이 한국 큰스님 글씨전을 둘러보고 있다.

다문화가정 추석맞이 전통문화강좌



부산 삼광사 힐링광장(대표 무원)은 9월 13일 삼광사 문화실에서 다문화 가정 20여 명을 초청하여 '한가위 전통예절문화 강좌' 를 개최했다.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한복입기와 절하기 등 한국의 명절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도와 덕련 스님의 힐링명상 등이 진행됐다.

힐링광장 다문화지원단 이영수 단장은 "한국전통예절 체험과 이해를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가족 간의 친밀도 향상과 소통을 이끌어 내고, 한국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문화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광사는 추석을 맞아 이날 참석한 다문화 가족에게 쌀, 추석선물세트, 다문화합장주를 전달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보현회, 창립30주년 맞이 기념법회



30년을 한결같이 보현행을 실천해 온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가 9월 13일 창립30주년을 맞아 "법당이전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아널 안성휘 보현회 회장은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사회의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지난 시간이 어느 덧 30년이 지나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보현행원을 실천해 나가는 불자단체로 묵묵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보현회는 1982년 작은 봉사모임으로 출발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생활비 및 병원지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사업을 실천해온 부산불교계의 대표적 봉사신행단체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9월 15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재학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불교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전북지역의 5개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가 9월 15일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각 지역의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는 불교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화엄, 전북, 이리, 남원, 무주불교대학의 재학생과 동문 1천여 명이 동참한 이 날 체육대회는 열띤 응원 속에 배구, 탁구, 터치볼, 2인3각 달리기, 릴레이, 단체줄넘기 등의 단체경기 위주로 진행됐다.

이밖에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줄넘기 등의 가벼운 게임을 통해 전북불교의 도약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한마당으로 치러졌다.

원행 스님은 신행 스님 대독을 통해 "미래불교의 지도자들이 뜨거운 우정을 다지며 중단없는 정진과 자기 성찰을 통해 불교대학인들이 전북불교의 힘찬도약과 전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지성불교, 복지불교를 위하여 전북지역의 불교대학인들은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주·진안 종교인들의 아름다운 협약



9월 12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4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존중 협약식 모습

최근 전주시의 종교관광성지화 계획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과 진안군의 종교인들이 의미있는 협약식을 가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무주군은 9월 12일 보산 스님(안국사), 홍해진 교무(원불교 무주교당), 이원철 신부(무주천주교회), 전영수 목사(무주기독교연합회)의 4대 종단과 '불우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세득)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은 봉사단체와 4대 종단이 함께 종교를 초월한 자원봉사 네크워크를 구축해 '나눔' 의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4대 종단 대표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협약서에 서명을 한 뒤 김장 나눔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진안군도 9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성목 스님(고림사), 김선지(원불교진안교구장), 전경성 목사(진안군 기독교연합대표), 박현웅 신부(천주교 진안성당) 등 4대 종단 대표들과 생명존중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진안군은 여러 종교계와 협력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시대에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널리 확산 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불자들 노인일거리센터에 쌀 보시



전주 환경불자회와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무소유실천팀은 한가위를 맞아 금산사 복지원 보리수마을 노인일거리센터(센터장 이성강)에 자비의 쌀 240kg을 보시했다.

환경불자회와 무소유 실천팀은 이후에도 매월 쌀 240kg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산사 복지원에서 운영하는 노인일거리센터는 40여명의 어르신들이 박스접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활불교동구협, 독거어르신에 효자손 전달



'생활불교동구협의회 함께하는 공덕회' (대표 대현)는 9월 14일 광주 동구청과 화순군청을 찾아 독거어르신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1000개(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효자손은 어르신들의 피부와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운정사 묘덕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효자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거쳐 지역별 독거노인에게 전달된다.

대현 스님은 전달 자리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와 가정을 운영하는데 근본이 되는 것은 효(孝)"라며 "작은 선물이 한 가위를 맞은 어른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108산사…팔정도 구체화한 획기적 신행

108산사순례회 7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열려

한국불교 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108산사 순례기도회가 7주년을 맞아 성과와 새 방향을 짚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선묵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주 혜자, 도선사 주지)는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학술세미나장에는 108산사순례회 회원 200여 명 등 400여 명이 운집했다.

2006년 9월 도선사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순례를 진행해온 108산사순례회는 현재 84차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108산사순례회 회원은 1만여 명으로 매 순례마다 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동참인원만도 약 85만 명. 108산사순례회는 성지순례 뿐만 아니라 선행과 보시를 펼치는 보현행원을 실천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25억 원이 넘게 지역 농산물을 구입해 농어촌 사랑을 실현했으며 매 순례마다 인근 군부대에 장병사랑 초코파이를 전달해 지금까지 총 370만 개 이상을 제공했다. 다문화가정 150쌍과 결연을 맺었으며 매년 친정나들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년소녀 가장 돕기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지원 등 선행보시의 새 장을 열어왔다. 최근에는 부처님 탄생성지 룸비니동산에서 평화의불을 채화해 순례 사찰 마다 분등을 하고 북한지역에도 불을 보내는 등 남북평화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1부 기념법회와 2부 학술논찬회가 열려 108산사순례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2년 동안의 순례의 과제와 한국불교 순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혜자 스님은 "9년간 대장정의 서원 이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08산사 순례기도회를 결성하고 대정정을 나선 까닭은 오직 신심의 발로였다"며 "은사 청담 큰 스님의 서원을 이어 받아 보현행원의 서원을 다시 세워 108순례 회향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자들 "참회와 보시실천 대중화 계속해야"

2부 학술논찬회에서는 학자들이 대거 발표자로 나섰다.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사회 하에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총평을 맡았다.

첫 발표에서는 108산사순례 전과정에 참여한 정성욱 시인이 그동안 활동과 의미를 설명했다. 정성욱 시인은 108산사순례가 보현행원의 실천으로 단순한 순례를 넘어 선행보시의 새 장을 열었음을 강조했다.

"대중화 위해선 사찰 주제별 특화"
매년 관심 주제 선택, 성공 비결
가족 중심의 새 신행 문화 개척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108산사의 한국불교사적 의미와 성과에 대해 △참회와 기도의 내적 순례문화 제시 △기부와 보시문화 구체화 △평등의 불교공동체 모델 제시 △부모와 자식의 윤리의식 환기 △다문화가정 섭수문화 기여 △지역 농가 활성화 이바지 △남북통일 밑거름 확보 △적극적인 불자의식 고취 등을 들었다. 또 108산사순례의 '참회', '사랑', '인연', '효행', '장학', '보시', '구매', '권진' 의 행법은 팔정도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고 교수는 108산사순례회의 모델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108사찰 선별을 주제와 내용별로 특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선사 측이 108산사순례 이후 33관음도량 순례 등을 지속해 대중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규리 동국대 선학과 강사는 108산사 순례회의 기도형태가 '제법공성', '불이사상', '반야지혜' 라는 대승사관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108산사순례회가 펼치는 다양한 사회사업활동의 배경에는 대중의견을 수렴해 실천하는 순발력과 결단성이 있는 실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바로 지금 여기' 의 중요한 관심사를 매년 주제로 선택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낸 것도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덕진 창원문성대 교수는 108산사순례가 여성 위주의 신행이 아닌 가족, 특히 청소년의 참가로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108산사순례회의 신행이 마하뜨마 간디의 공동체 운동인 '사띠야그라하' 와 버금가는 21세기 보살운동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운동은 내적인 참회와 서원의 여행으로 회향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회 회원들이 순례하는 모습(사진 위)과 9월 15일 열린 7주년 기념학술세미나 모습(사진 아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삼법인(三法印) 용어 부파불교 시대 나와"

김한상 박사,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의 첨단연구' 세미나서

불교의 근본교의인 삼법인, 혹은 사법인이 부팝루교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상 박사(켈라니야대학교 팔리불교학)는 9월 14일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가을논문발표회에서 '법인' 의 용어가 부파불교와 중국 교상판석 과정에서 정착됐음을 주장했다.

김한상 박사는 "인도대륙에서 활동한 소승과 대승의 부파들은 대외적으로 동시대의 여러 인도사상들과 경쟁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적으로도 각 파간에 치열한 이론투쟁을 전개했다"며 "때문에 '법인' 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파의 사상을 선양하고 불설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아 교상판석(敎相判釋)을 통한 교리 분석이 치열히 전개됐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반면 상좌부에서는 지역적으로 고립된 스리랑카에 정착되며 안정적인 수행과 교학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락카나' 라는 용어를 통해 초기불교의 무상 · 고 · 무아의 법칙을 수행과 결부시켜 해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설일체유부가 고를 제외한 삼법인을 설한 이유는, 붓다도 때에 따라서는 고를 제외하고 무상과 무아만을 설하였듯이, 무상 · 고 · 무아는 긴밀한 상호관계에 있다는 점에 있을 것"이라며 "삼법인과 사법인에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아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무아의 가르침이 없는 것은 불교가 아니며,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해탈의 도정에서 어떠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이들도 간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어 "상좌부의 삼상과 공상, 그리고 북방불교의 삼법인과 사법인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며 "설일체유부의 삼법인은 무상 · 무아 · 열반이기 때문에 삼상이나 공상과 같은 용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일본불교사硏, 일본불교 합동세미나

9월 28일 군산 동국사 및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동국대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는 9월 28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층 규장각에서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그리고 일본불교' 를 주제로 한일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오전 10시 30분 제1부 군산 동국사 한일합동법회를 시작으로 경술국치 103주년 추념 특별기획전 관람, 오후 1시 한일합동 학술세미나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박진석 군산 문화체육과장의 '군산의 근대문화유산과 그 활용' 기조발제에 이어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은 근대불교의 다면성', △다이토우 사토시(大東仁)의 '초기 조선국 부산개교', △한상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의 '한국 근대불교와 오쿠무라 엔신(奧村圓心)', △이치노헤 쇼고(一戶彰晃)의 '유묵에 나타난 일본 고승의 군국주의 연구' 등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제점숙 동서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김춘호 원광대 강사 등이 나선다. (063)443-8283

노덕현 기자

금강대,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우수대학

3단계 계속과제 선정 및 향후 4년간 40억원 지원 받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에서 시행중인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 한국연구재단 단계평가에서 3단계 계속과제로 선정됐다. 또, 우수평점을 받아 인센티브 5%를 포함해 향후 4년간 40억원을 지원 받는다.

금강대는 "한국연구재단 종합평가의견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이 원만히 수행돼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2단계 연구실적들은 대부분 학술적 의의 · 가치가 매우 높아 관련분야에서 모범적 연구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문한국(HK) 지원사업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은 16개 연구소로, 금강대 외에 강원대, 고려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순천대, 인하대, 이화여대, 한림대, 한양대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금강대가 우수 평가를 받아 상위 2개 연구소에 주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반야학술상 공모

저역 · 논문 분야…9월 30일까지 접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제3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곽만연, 박문현)는 "불교학 및 불교문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3회 반야학술상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저역(著譯)과 논문(論文) 분야로 각 400만원의 연구비가 수여된다. 저역상은 저술과 번역서를, 논문상은 학술지 〈동아시아불교문화〉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2013년 9월 30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간(발표)된 저서및 역서, 논문이 대상이다.

지원및 추천 마감은 9월 3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를 참조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법밀종 '법화경과 밀교신앙' 학술세미나

9월 28일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대한불교법밀종 중앙회(법주 도명)는 9월 28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법화경과 밀교신앙' 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사회 하에 △정성준 동국대 강사의 '중국불교의 천태사상과 밀교의 교섭',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법화와 밀교, 그 만남의 가능성', △이성운 동국대 강사의 '법밀 수행 의례 시론' 등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봉 행

금강산 건봉사 10월 26일 (토) 가을산신 대제

남한에서 가볼 수 있는 유일한 금강산,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는 민통선 최북단에 위치한 호국불교의 상징으로써, 아름다운 산세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년 고찰입니다. 온갖 천지 만물 자연의 생명력이 왕성한 금강산 건봉사에서 매년 봄,가을 산신대제를 여법하게 봉행하여 왔습니다. 금년 가을 산신대제는 신명나게 봉행하여 금강산 산신님을 감동시켜 동참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발원, 사업번창, 시험합격, 득남득녀, 좋은 인연 등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일시와 같이 성대히 봉행 합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금강산 건봉사 가을 산신대제" 일정

■ 일 시 : 2013년 10월 26일(토요일) 10:00
■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산신각
■ 동참금 : 한가족당 5만원(계좌번호: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지금 접수하시면 산신대제 날까지 매일 축원해 드리며,
산신대제 후 일주일 동안 특별 축원합니다.

■ 접수문의 : 전화 033)682-8100~2 / 팩스 033)682-5994
www.geonbongsa.org
■ 차량문의

서울 : 건봉사 종무소 : 033)682-8100
부산 : 금 강 정 진 회 : 051)635-7878
부산 : 자 비 정 진 회 : 011-883-8868
울산 : 태 진 관 광 : 010-8551-9378
대전 : 귀 빈 관 광 : 010-9415-8717
서울 : 지장사 02)488-0180
부산 : 뉴엔젤 여행사 : 010-4243-9052
울산 : 연 꽃 불 자 회 : 011-862-9191
대구 : 청 정 심 보 살 : 010-5165-2915
포항 : 청 록 관 광 : 010-3512-3969
부산 : 불광회 박거사 : 011-855-8741
광주 : 정 길 태 : 011-604-2377
창원 : 성 산 보 현 회 : 010-4570-9301
마산 : 보 현 경 보 살 : 010-6762-3962

※ 지방은 각 지역별로 접수 출발하고 서울은 10월 26일 서울 조계사앞에서 당일 아침 6시40분에 출발합니다.
※ 산신대제 동참하실 분은 당일은 복잡하오니 미리 종무소 033)682-8100~8102번으로 전화 접수바랍니다.

금강산 건봉사 "단풍이 괜찮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적멸보궁 金剛山 乾鳳寺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등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 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불교와 미학

반가사유상과 생각하는 사람

사유의 아름다움 예술로 승화한 '반가상'

"인간은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파스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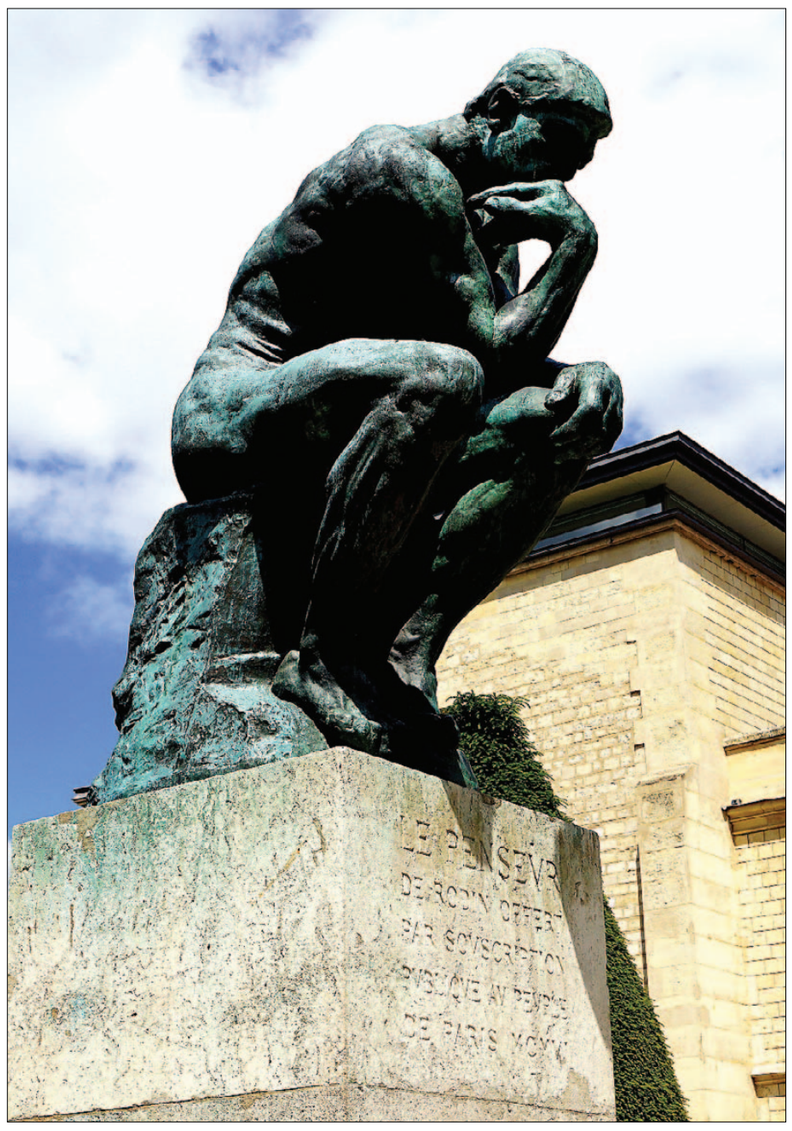
우주 속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전 우주를 능가하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파스칼이 지적한 것처럼 '생각하는 능력' 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인간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 무기를 만들고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연장을 개발했다. 그 덕분에 인류는 찬란한 문명을 건설했으며 이제 그 문명은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복제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사유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습은 인간만 취할 수 있는 자세이다. 그런데 생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예술작품이 등장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이다.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 산 로렌조 교회에 있는 메디치 무덤에 조각한 'Il pensieroso'와 시스티나 성당 천정벽화 '예레미야'가 그 최초의 작품이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 미켈란젤로의 조각에 크게 영향을 받은 로댕이 그 뒤를 이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원죄에 대한 고뇌 담아
대상을 객관화하는 표상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 기베르티의 조각 '천국의 문'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원래 파리의 장식미술관에 전시될 기념문으로 계획된 '지옥의 문'의 한 부분으로 제작되었다. 단테의 〈신곡〉에서 주제를 따온 '지옥의 문'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작품의 중심으로 1880년 독립적인 청동조각상으로 제작되었다. 로댕의 무덤에 놓일 정도로 로댕이 혼신의 힘을 쏟아 부은 작품인데, 최초에 붙여진 '시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단테의 형상이며 동시에 로댕 자신의 자아를 형상화한 것이기도 하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왼손을 왼편 무릎에 얹고 오른 팔꿈치를 왼편 다리에 받치면서 턱을 괴고 있는 이 조각상은 일반적으로 턱을 괸 자세와 달리 안정적이지 않다. 그 어떤 자세보다 강한 동세를 함축하고 있어서 어느 미술사가가 지적한 것처럼 "머리나 찌푸린 이마, 커진 콧구멍, 꽉 다문 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팔의 근육과 등, 다리 단단히 쥔 주먹과 긴장된 발가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의도적으로 비틀어진 자세는 고통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처럼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을까?





로댕의 대표작품인 '생각하는 사람'〈사진 왼쪽〉과 한국의 국보 제78, 83호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 원죄에 대한 고뇌를 담은 '생각하는 사람'은 객관화를 통해 대상을 분리한 근대 사상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반가사유상은 영원한 실체는 없다는 적멸의 진리를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사유에 대한 동서양의 간극과 깊이를 두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신곡 '지옥편' 中〉

'지옥의 문' 윗부분에서 아래의 군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신과 인간의 세계로 나누어 모든 인간을 신에 의해 심판 받고 구원받는 대상으로 생각. 이 작품은 벗은 채로 바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자신의 발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영혼들을 내려다보며, 지옥에 막 도착한 단테는 자신의 발아래 펼쳐진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을 응시하고 있다. 지옥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압도적인 장관의 위대함에 몸을 떨며, 그는 지옥의 어둠 속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 영혼들의 몸부림과 절규를 바라보고 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그는 묵묵히 온 몸으로 인간의 '원죄'를 사유하고 절망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이며 동시에 로댕 자신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의 고뇌는 중세인의 종교적인 고뇌가 아니라 보들레르가 말한 '악의 꽃'처럼 타락한 현대사회에서 고독한 개인의 내면적 고뇌를 표현한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의 사유는 지옥 바깥에서 응시하는 자의 사유로서, 서양 근대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대상을 객관화하는 사유이며, 주관은 항상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푸코가 지적한 것처럼 근대의 도구적 사유는 대상을 지배하는 지식을 제공하며 그래서 일종의 권력이 된다. 이처럼 일종의 권력으로서의 사유는 파토스로서, 비극적인 힘으로서 몸과 세계를 지배한다.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의 몸은 정신과 일체화된 몸이 아니라 대상을 객관화하는 사유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한 미켈란젤로가 돌로부터 영혼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것과 달리, 육체와 정신의 분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서양 근대의 조각가 로댕은 청동의 몸에 근대적 사유를 각인하였다.

'반가사유상'은 '생각하는 사람'과 포즈도 비슷하고 이름도 유사하기 때문에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 이 두 작품만큼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도 없기 때문이다.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청동으로 제작된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세부묘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왼쪽 무릎 위에 오른쪽 다리를 걸치고 오른 손가락을 얼굴에 살짝 대고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같다. 이 자세 때문에 '반가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반가부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동양적인 얼굴에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눈,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이 보살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처럼 고뇌하는 표정도, 불안정 자세도 없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며 편안하고 우아하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사유하는가?

미륵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농경제에 갔다가 보습에 걸려 벌레가 죽는 모습을 목격하고 생성과 소멸, 삶의 근본 원리를 사유했던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을 '태자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유상이 사유하고 있는 것도 '생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삶과 죽음을 사유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고 있다.

태자가 바라보았던 장면은 죽어가며 고통 받는 벌레의 모습이었다. 미물에게도 생명은 덧없고 몸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벌로 받은 것도 아니다. 몸은 저 주받은 것도 아니고 정신을 가두는 감옥도 아니며 단지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영원한 실체도 아트만도 아니며, 지, 수, 화, 풍,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생겨나면 곧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하지만 생과 멸이 사라지면 적멸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가 행한 사유, 즉 선정은 어떤 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나를 비우는 행위이다.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을 모두 비웠을 때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몸을 대상으로 삼거나 단지 영혼을 담는 집이나 도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몸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할 뿐이다. 몸을 대상화하는 사유는 몸을 소유하려고 하고 몸에 집착하지만 몸의 느낌을 모두 수용하는 사유는 몸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몸과 정신을 유기적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수행을 위한 도구로 간주되었다. 또한 몸은 정신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매체로 보았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외형의 유사성을 중요한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동하는 정신을 묘사한 작품이 최고의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신체의 비례나 사실적인 묘사보다 그 형상에 깃든 정신을 잘 반영하는 것이 좋은 예술작품의 관건이었다. 그 결과 동양예술은 몸보다 정신이 더 잘 표현되는 얼굴을 더 세밀하게 묘사했지만, 몸은 정신의 반영으로서, 정신이 깃드는 장소로서 소중하게 여겨졌다. '사유상'의 엷은 미소와, 가는 허리, 기다란 손가락의 곡선은 아무나 모방할 수 없는 경지를 반영한다. 보살의 고요하고 깊은 정신세계는 그 섬세하고 부드러운 몸이 없었다면 형상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엷은 미소가 매력적인
한국 국보 반가사유상
적멸의 즐거움 일깨워

'생각하는 사람'과 '반가사유상'은 서양 근대의 사유와 육체, 그리고 동양의 선정과 몸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는 사유의 깊이는 어디인지 되새겨볼 일이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 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수강신청 : **10월 8일까지 (서류접수 10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자기 마음=부처’ 임을 확철히 믿자

10. 마음 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배휴가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진짜 뼈저리게 이 문제를 붙들고 밤낮으로 씨름하는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방 · 할만 해주어도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다. 안목을 갖춘 분이라면 이때를 당해 묻는 이를 향해 단도직입으로 한 마디 한다든지, 돌아앉는다든지, 손가락을 세운다든지, 때려준다든지, 별의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기연(機緣)이 되는 것이다. 마치 달걀의 안에서 병아리가 충분히 부화되어서 나오려고 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미닭은 밖에서 그에 대응하여 같이 쪼아줄 때 껍질이 탁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과 같다. 이것을 ‘줄탁동시’ 라고 한다.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부처는 곧 마음이니, 마음과 부처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가 없다.”

배휴처럼 자기 마음을 이미 한 번 밝혀본 사람도 스승에게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스승은 ‘마음이 곧 부처다.’ 고 바로 일러준다. 마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무엇인고?’ 하고 되물어주기도 했다.

배휴가 물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자기 마음이 곧 부처임을 확철하게 믿지 못하면, 따로 무엇이 있어 전해 주고받는다고 오해하기 쉽다. ‘조사서래의’ 는 곧 일심일 뿐, 달리 다른 법이 없다.

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지만, 실로 전해준 것도 없고 전해 받은 것도 없다. 단지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했다는 말이다. 다만 이런 말을 이해에 그치지 말고, 자기도 직접 맛을 봐서 확인해야 한다. 배휴로서는 알기는 다 아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다. 답답하니까 같은 말을 묻고 또 묻고 한다. 사실 스스로 확실하지 않다면, 배휴처럼 자꾸 부닥쳐야 한다. 이해한 마음 가지고는 스스로도 다스릴 수 없다. 아무리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 마음이 뒤집어질 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증득해야, 일체가 그림자뿐임을 자각해서 안심입명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3승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허공에 도장 찍듯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지위점차를 빌려와서 공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바로 도장 찍어서 확인한 그 모습을 쓰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 의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수행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조사서래의는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허공에 도장 찍는 소식’ 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다.

배휴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데, 실로 출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불교를 믿게 하는 차원에서는 2천 5백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셨다고 하지만, 불법의 입장에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오고 간 적이 없는 것이다. 석존께서 무우수 나무 아래 태어나셔서 일곱 걸음을 걷은 뒤 한 손은 허공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고 말씀하셨다는데, 운문스님은 거기에 대고 “그때 만일 내가 봤더라면 일방 타살해서 사나운 개한테 던져주겠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이다. 이러한 말들의 낙처가 어디 있는지 세심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한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셨다.”

불법은 오직 일심법(一心法)만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촉하셨다. 이 일심법체(一心法體)는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 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이 법을 논하더라도, 어찌 그대가 언구에서 그것을 해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계합할 따름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 현재 · 미래에 관계없이 늘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계합하여 체득하지 못하면 늘 대상에 집착하여 헐떡거리며 살게 된다. 다행히 석존께서 대각을 성취하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움으로 거듭났고, 그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중생세계에 일러줘서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은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고 죽는 바 없이 인연 따라 흘러오고 흘러간다. 이 우주법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그랬고,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천지가 창조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러할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2〉



범어사 주지



그림 · 박구원

그대의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마음을 증득해야
일체가 그림자뿐임을
자각해서 안심입명
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늘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정확히 계합하여
체득하지 못하면
늘 대상에 집착하여
헐떡거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나고 죽는 바 없이
인연 따라 흘러오고
흘러간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⑧



모든 죄악업을 이제 모두 참회합니다

〈천수경〉

왜 ‘조상탓’을 할까?

잘못을 했으면,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그것이 잘 안 된다.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대단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이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정(否定)한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의 ‘자기’ 를 한번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시 비로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것이 참회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수행이 깊고 투철함을 말하는 것으로 평가해서 좋을 것이다. 에고(ego), 아만, 자부심, 프라이드(pride)가 높은 사람들은 더욱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참회를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대신에 ‘조상탓’을 하게 된다. 돌아가신 조상탓을 하든, 살아있는 부모 탓을 하든…. 남의 탓을 하면 된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린다.

그런 반면에 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자기를 한번 죽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는 무아(無我)가 된다. 무아의 존재가 부처님 아닌가. 그러므로 참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언제나 스스로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겸허함과 용기, 그리고 하심(下心)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과연 나 스스로는 수행자일까, 아닐까? 그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조상탓’ 을 하는가, 아닌가?

공(公)과 사(私)

다시 물어보자. 왜 우리는 자기부정을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말일까? 이 물음의 배경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갖는 커다란 성격 하나가 놓여있다.

자기를 버리고 따라야 할 공도(公道)가 있다. 이런 전제를 불교는 하고 있다. 그 공적인 길을, 불교에서는 법(dharma, dhamma)이라 한다. 이 법은 중생들인 우리만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부처님마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던가. “이 진리는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지 안 하든지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출현 전에도 그 진리는 존재하였고,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진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교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 해도, 그 진리는 존재한다.

그런 법을 부처님께서는 밝게 아시고 밝게 깨치시고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야말로 시비가 분명하신 분이다. 너무나 시비가 분명하기에 시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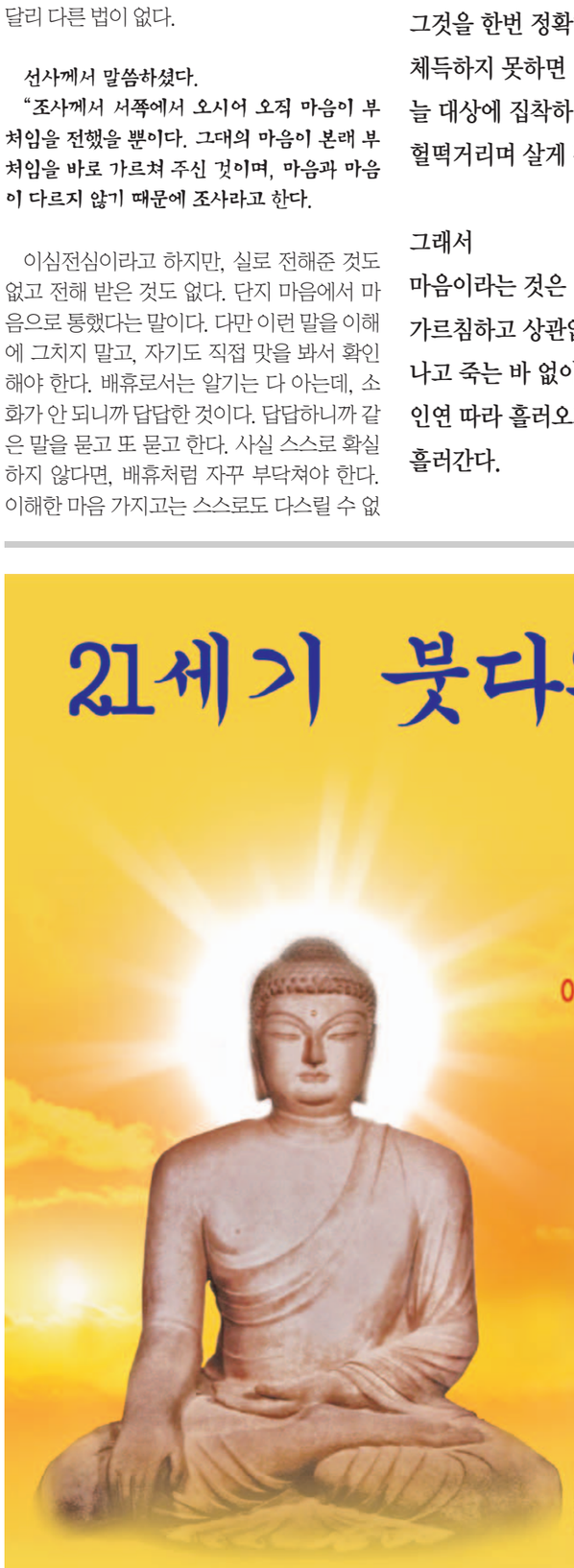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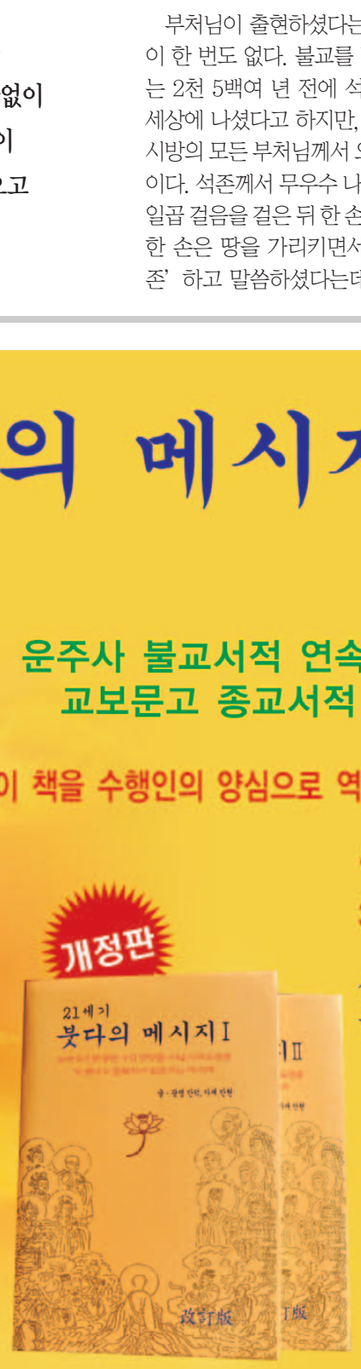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런 반면에 우리는, 나 밖에 존재하는 공도를 알지 못하기에 시비가 많다. 시비에 밝지 못하고서 시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내가 가끔 “불교는 자비의 가르침이 아니다. 무자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무자비는 이 공도의 무자비성을 말하는 것이다. 공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자비의 가르침인 줄로만 안다.

그래서 자비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공도를 사도(私道)로 만들려 한다. 참회를 통해서 부정해야 할 자기를, 공도 속에 섞으려 한다. 그것은 법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 참회가 그만큼 어려워서 생기는 일들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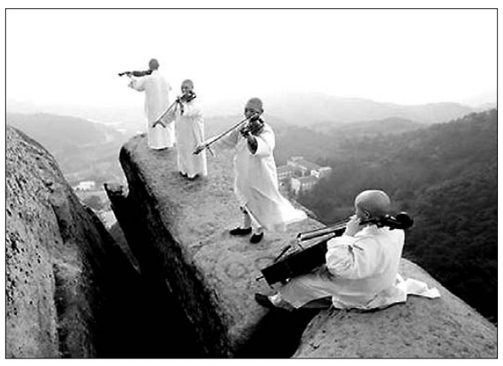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양악기 연주하는 中 비구니 악단 '눈길'

새하얀 승복을 입은 비구니 스님들이 높은 절벽에 서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장면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중국 허베이(Hubei)성 티안타이(Tiantai, 이하 '천태') 산 정상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런 모습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인민보 영자판(english.peopledaily.com.cn)은 9월 4일 "4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된 구앙수안(Guangxuan) 예술단이 허베이 성 천태산 정상에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를 꾸몄다"고 보도했다.

구앙수안 예술단은 천태사에서 수계한 7세부터 42세까지의 사미니, 비구니 스님들로 구성, 2008년 3월 결성된 악단이다. 구앙수안의 특징이라면, 전통 악기가 아닌 바이올린이나 첼로와 같은 서양 악기로 전통 불교음악에서 클래식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천태산 인근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의 주요 사찰을 방문,



천태산 적별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에 몰입한 구앙수안 단원 스님들.



천태사 본전 앞에서 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는 구앙수안 예술단. 구앙수안 예술단은 천태사에서 수계를 받은 7~42세 사이의 사미니,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2008년 3월 결성됐다.

2011년부터 중국불교계 안팎서 불음 전파 무대 열어

2008년 결성, 40여 단원 … 서양악기로 불법 전해

공연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구앙수안을 결성할 때만 해도 단원(사미니, 비구니) 모두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단원 중에서는 바이올린을 처음 본 이도 있었으니까요"라고 회상한 쉬 쩡 ?? 오콩(Shi Zheng Xiaocong, 27) 스님은 "단원들이 악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수차례 초청 무대를 꾸몄다"며 "전문 연주자에 버금가는 실력을 닦아 보다 많은 곳에서 구앙수안의 무대를 선보이는 게 단원 모두의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구앙수안 단원의 사중 생활은 여느 스님과 다르지 않게 하루 7시간 정진을 지킨다. 물론 그 외 시간은 허베이 성의 중앙음악원(Central Conservatory of Music)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들의 음악적 소양을 키우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인민보〉 영자판은 "중앙음악원은 구앙수안 단원들에게 악기 연주는 물론 성악과 무용도 가르치고 있다"며 "이는 중앙음악원이 중국불교 사상 첫 '사미니 · 비구니 악단'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라고 전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은 너무 분주해, 그들이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리는 시간도 내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지적한 천태사 주지 쉬 우레(Shi Wule) 스님은 "그래서 음악이라는 방편이 불교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구앙수안의 음악이 단초가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며, 구앙수안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비파(pipa)나 고쟁(guzheng)과 같은 전통 악기를 버리고 서양 악기를 든 스님들을 중국 불교계가 혹은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해 다소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한 〈인민보〉 영자판은 쉬 우레 스님의 말을 인용, "음악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양 악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손색이 없다. 다양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11.2m 불상, 美 소도시에 조성

베트남 '화이트샌즈불교센터'…플로리다서 3번째 규모



미국 플로리다 주 밈스 지역에 너비 11.2미터 무게 40톤에 이르는 부처님 열반상이 세워졌다.

인구 7000여 명에 불과한 플로리다 주의 한 시골 도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뉴스 저널(News Journal)〉 지는 9월 10일 "너비 11.2 미터 무게 40 톤에 이르는 부처님 열반상이 플로리다 주 밈스(Mims) 지역의 베트남 불교공동체인 화이트샌즈 불교센터(White Sands Buddhist Center)에 조성됐다"고 전하고, "이는 플로리다 주를 대표할 불상 중의 하나로 손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열린 '부처님 열반상 봉안 법회'에서 경과보고에 나선 모리스 세키요 설리반(Morris Sekiyo Sullivan · 플로리다 주립대학) 교수는 "부처님 열반상은 베트남 현지에서 화강암으로 조성, 이곳 화이트 샌즈 불교 센터의 경내에 마련된 조각공원으로 이운됐다"고 설명했다.

밈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화이트샌즈불교센터의 조각공원에는 베트남불교 대표 상징인 두 개의 '사자 기둥(lion pillars, 약 10 미터)', 자비와 지혜의 표상인 '관세음보살상(약 9미터)', 깨달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부처님 수행상(약 11미터)' 등 4개의 불교 상징물이 조성되어 있다.

한편 〈뉴스 저널〉 지는 "지난 2005년 카이 티엔(Khai Thien)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 · 운영되고 있는 화이트샌즈불교센터는 베트남 불교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식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의 운영 방침에 힘입어 플로리다 밈스 지역 벽안 불자들의 심신까지도 다잡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화이트샌즈불교센터가 10여 년 만에 플로리다 주의 대표적인 불교공동체로 자리매김한 이유"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중국, 티베트 정책 전환 시도"

"중국의 티베트 정책이 실제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78)이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미국의 소리(VOA)는 9월 13일(현지시간) "달라이 라마는 지난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티베트자치구(중국명 · 시짱〈西藏〉)에 대한 중국의 기존 강경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중국 새 지도부가 티베트 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티베트 문제를 비교적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VOA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간절한 소망을 지지하는 중국 지식인과 불교 신자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서 티베트 정책 변화의 조짐을 읽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티베트인의 염원은 중국의 통치 아래 '의미있는 자치'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와 중국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역을 통합한 대(大)티베트를 만들어 자치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그가 티베트의 분열을 책동하고 폭력을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이 티베트 정책의 전환 시도에 나섰다는 달라이 라마의 주장은 중국 새 지도부의 티베트에 대한 강경 정책 고수 선언으로 티베트 망명 정부와 중국 내 티베트인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일각에선 달라이 라마가 중국 새 지도부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 중앙행정사 사장(司長 · 총리격)은 8월 2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중심의 중국 정부 출범 이후 티베트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달라이 라마의 정치적 후계자인 그는 중국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서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고 있으며 티베트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대만 불광산서 열린 '불교예술 展'

12월 18일까지…한 왕조 불교미술 등 131점 전시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Mo Yan) 작가는 불교예술전을 방문해 '모옌 작가의 실크로드 비디오 클립(Video Clip)' 코너를 진행, 자신이 직접 찍은 실크로드 상의 대표적인 불교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대만 불광산(Fo Guang Shan) 일대에서 대규모 'Buddhist Art Exhibit(불교예술 展)'이 열렸다.

〈차이나 포스트(China Post)〉 지는 13일 "'인본주의 문화 · 교육재단(Humanistic Culture and Education Foundation)'과 '불광산 불교문화 · 교육재단(Fo Guang Shan Foundation for Buddhist Culture & Education)'이 9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Buddha Memorial Center)'에서 'Buddhist Art Exhibit(불교예술 展)'을 공동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불광산 불교문화 · 교육재단 측에 따르면, 'Buddhist Art Along the Silk Road(실크로드를 수놓은 불교예술)'를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산시 · 간쑤 · 신강성 일대의 대표적인 불교미술 작품 131점을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에서 선보인다.

〈차이나 포스트〉 지는 "이번에 전시되는 불교미술품 중에는 한나라 왕조의 불교 미술품이 백미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 밖에도 실크로드와 운명을 같이 했던 불상과 불화, 구법에 나선 스님들의 가사와 전적 등도 전시의 재미를 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Mo Yan) 작가가 15일 불광산 '부처님기념센터'을 방문, 전시회 홍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모옌 작가의 실크로드 비디오 클립(Video Clip)' 코너를 진행했다.

자신이 직접 찍은 실크로드 상의 대표적인 불교예술 세계를 선보인 모옌 작가는 "중국의 문화는 불교를 근간으로 태동하고 성장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중국인의 일상에 자리잡은 불교가 '중국인의 도덕적 유전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옌 작가는 중국 민중의 삶을 해학적, 직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아 201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지만, 체제 순응적 작가라는 비판과 중국의 문학작품 검열체제 문제 등으로 수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10세기 아시아 불교미술 기획전

소더비 갤러리, 카라차크라 만다라 등 60여 점 선보여

미국 소더비(Sotheby) 갤러리가 9월 23일까지 올 가을 홍콩에서 마련할 아시아 유물 경매에 앞서 중국 · 일본 · 티베트 · 네팔 등의 10세기 이후 불교미술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열었다.

〈뉴스 트렉 인디아(News Track India)〉 지는 9월 2일 J. 데니스(Jacqueline Dennis, 소더비 아시아 예술부 큐레이터) 씨의 말을 인용, "이번 기획전은 지난 10년간의 경매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불교미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카라차크라 만다라(Kalachakra mandala, 15세기 초)와 부처님 열반(Parinirvana of Buddha, 16세기) 등 20여 점.



이번 기획전에서 주목되는 작품인 부처님 열반(Parinirvana of Buddha, 16세기)

데니스 씨는 "이들 작품은 10세기 이후 아시아 불교미술의 변화의 초점을 그대로 담아낸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 미술품은 10세기 이후 아시아 불교미술의 변화의 추이를 좇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新製品

〈본 광고문안은 모아 두십시오〉

제품 안내서 무료발송

「Stuart YD-675 마이크」
단 한 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YD-675 高音質 다이나믹 마이크』의 담백하고, 맑고, 힘찬 소리는 스님의 품위를 한층 높여 드릴 것입니다.



• 고음질 YD-675
가격 : 115,000원

이런 스님께 구입을 권합니다 …

- 법당 마이크 사용에 너무 힘이 드시는 스님
- 스피커의 소리가 안 좋은 법당
- 오래된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스님
-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비구니스님
- 여러 마이크로 바꿔봐도 효과를 못 보신 스님

법당, 앰프, 스피커 설치, 보완전문 !!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마에 휘둘리는 사대육진 한탄

추사는 제주 유배지에서 일취월장된 불교의 식견이나 의문이 일어나면 일일이 초의에게 물었다. 청에서 간행된 신간 불서가 제주로 도착하면 어김없이 초의에게 알려 함께 증험하자는 청을 보내기도 하였다. 초의 또한 그랬다. 자신의 신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언제나 추사에게 상의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추사의 편지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완당전집〉〈여초의〉24신과 〈벽해타운첩〉에 함께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대광명전을 신축한 후, "대광명전"이란 편액 글씨를 신관호(1810~1884:후일 신헌으로 개명)에게 부탁하였고, 이 편액 글씨를 추사에게 보내 하나하나 점검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또 〈벽해타운첩〉의 편지 말미에 10월22일이라 하였기에 이 편지를 쓴 월일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쓴 해는 언제일까. 그 단서는 "입과 코의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이고, 또 눈마저 눈곱이 낀다"고 한 것이나 허 소치의 안부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추사의 입과 콧병은 1843년 겨울에 발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그가 1844년 3월 10일 집으로 보낸 편지에 "나는 설창과 비식으로 여전히 고생하면서 5~6개월을 끌고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그가 "입과 코의 고통이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라는 사실에서 이 편지는 그가 입과 콧병으로 고생했던 시기인 1847년경에 쓴 것이라 여겨진다. 아울러 추사는 허 소치가 돌아간 후 그의 안부를 물었는데, 소치가 제주를 떠난 것은 1847년이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847년 10월 22일 초의에게 보낸 편지인 셈이다. 이 편지를 살펴보자.



〈벽해타운첩〉

불교관한 의문들 초의에게 일일이 물어
초의도 신변 대소사 추사에게 물어
신관호의 편액 글씨 추사에게 점검

자른 듯 왕래가 없어 멀리에서 몹시 궁금하던 차에 우리 집 하인으로부터 스님의 편지와 차 꾸러미를 받으니 반갑고도 위안이 됩니다. 더구나 스님은 수행이 안정되고 매우 밝고 성취도 원만하고 좋다니 매우 잘됐습니다. 편액의 글자를 신헌 수사(水使)에게 부탁했다니 결말이 매우 좋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탑본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글씨의)아름다움이 대웅전과 나란히 할 만합니다. 입과 코의 고통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대로이고, 또 눈마저 눈곱이 낍니다. 사대육진이 마에 휘둘리지 않음이 없으니 한탄할 뿐입니다. 허 소치가 그 사이 돌아가서 별 탈은 없는지요. 생각이 간절합니다. 반가워서 손이 가는 대로 간단히 적었습니다. 이만…노가(截然無去來 殊庸遠溯 卽從家伻見獲梵械茶包喜慰 且悉禪安大光明 成就圓好甚盛盛 扁字之屬之水　果極好 今見榻本之轉示足可以　美大雄矣 口鼻之苦經年閱歲 又添眼花四大六塵無不魔撓可歎 許痴間或歸來無恙耶 念切開眼信手艱草 不宣 老迦)

추사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 듯, "자른 듯 왕래가 없어 멀리에서 몹시 궁금하던 차에" 뜻밖에 초의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입과 콧병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던 추사였으니 그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초의의 차와 편지였다. 아울러 초의의 수행 소식은 추사에게도 "매우 밝고 성취도 원만하고 좋다니 매우 잘 된" 즐거운 소식이었다. 초의는 추사의 제주 유배 초기, 그의 해배를 서원(誓願)하여 대광명전을 건립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후원한 인물은 신관호이다. 따라서 그가 쓴 대광명전 편액에는 글자마다 이들의 정성스런 서원이 담겨진 것이라 하겠다. 초의는 대광명전을 건립한 후, 조석(朝夕)으로 추사의 무사안녕을 빌었으리라. 한편 추사가 "(글씨의)아름다움이 대웅전과 나란히 할 만하"다고 한 신관호의 한묵(翰墨)은 지금도 묵묵히 대광명전을 지키고 있다. 최근 대광명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초의가 1841년에 쓴 상량문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1851년 윤치영이 쓴 〈대광명전신건기〉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대광명전의 건립시기 문제는 뒤로 미룬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 :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어려서 듣는 찬불가, 확실한 불자 만드는 일"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종만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온갖 꽃 피어나는 만 생명 축복의 날. 오늘은 기쁜 날 님께서 오신 날. 별 담은 새벽이슬 연꽃이 피는 날. 한줄기 햇살이 온 세상 빛이 되어 노래하리.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진리의 함성이 온 누리 퍼지네. 환희의 노래로 온 누리 퍼지네."

국민 찬불가 '오늘은 좋은 날.' 찬바람이 들락거리기 시작한 가을의 문턱에서 국민 찬불가의 작곡가 이종만(55)을 만났다. 사무실 창가엔 기타 하나가 서있다. 마주 앉은 그의 시선 끝에는 그동안 그가 발표했던 찬불가와 찬불동요 음반이 빽빽이 꽂혀 있고, 벽면엔 '붓다 콘서트'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1996년부터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이하 풍경소리)를 이끌고 있는 그는 자신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으로 불러 달라고 했고, 기사에 그렇게 적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그의 이름 뒤에는 수식어가 많았다. '이종만' 을 한 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그는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으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뮤지션이다. 특히 '찬불동요를 사랑해오고 있는 사람' 이다. 그는 어떻게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으로 살게 된 것일까.

갑자기 꺼진 불

그는 대중가수를 꿈꾸고 있었다. 길을 모색하던 20대 초반, 그는 포크 음악을 하는 동아리 형태의 그룹 '참새를 태운 잠수함' 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그룹 내 선배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으며 꿈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주목받기 시작했고,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젊은 음악인은 세상이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종만' 이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는 대한민국이 격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1980년 초였다. 모든 것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시기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동아리 활동이 여법하지 못하게 됐다. 첫 번째 시련이었다.

"늘 환하게 켜져 있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불이 갑자기 꺼진 것 같았죠. 그 때는 모든 게 다 잘될 것 같았고,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애송이였던 것인데, 자신을 몰랐던 거죠. 음악적으로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갑자기 꺼진 인생의 불빛.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처음 써 본 찬불동요

방황이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친구의 부탁으로 서울 조계사 어린이법회 내 '어린이 합주단' 의 지도교사를 맡게 된다. 약 50명 규모의 어린이 연주단이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에게 어린이 합주단은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다. 일단 음악 속에 있을 수 있었다. 말(馬)이 없던 기수에게 작은 말이 하나 생긴 것이다.

아이들의 음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며, 아이들의 서툴지만 때 묻지 않은 음악 속에 있을 수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신이 나서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거든요."

그는 그렇게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 음악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고, 음악의 처음으로 돌아간 그는 인생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된다. 약 한 달 동안 어린이 합주단을 지도해주고 그는 다시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던 어느 날, 조계사 어린이 법회 관계자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게 된다. 노랫말이 있으니 곡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였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찬불동요를 작곡하게 된다.

다시 들은 나의 노래

"개구쟁이 우리 스님 살금살금 다가와서 귓가에 입을 대고 어흥하고 소리쳐요. 깜짝 놀라 돌아보면 메롱 찌롱 놀리지만 스님 얼굴 바라보다 슬그머니 웃음짓죠. 개구쟁이 우리 스님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깨를 툭 치고는 검지손가락 갖다 대요. 화가 나서 돌아보면 혀 내밀며 약 올려서 스님 모습 바라보며 까르르르 웃고 말죠."

시련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답답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때였다. 그는 친구를 따라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여름 캠프를 따라가게 된다. 캠프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멜로디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래는 자신이 한 2, 3년 전에 만들어준 '개구쟁이 스님' 이란 노래였다.

"그때 곡을 써주기만 했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진 못했는데, 캠프를 같이 가서 처음 아이들이 부르는 제 곡을 처음 듣게 되었죠. 합주단 지도교사를 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찬불가' 란 거창한 생각보다도 '동요' 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아, 이런 음악도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란 생각에 답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던 저로서는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 시절이 훗날 제가 찬불가를 할 수 있게 된 원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조계사어린이합주단 인연 후 찬불가 접해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 으로 정식 데뷔
1995년 첫 찬불동요집 발표…36집 발표
찬불가 400여 곡 발표 중 자작곡 100여 곡
연등축제 찬불가 작곡, 회향한마당 기획
"방송에서 찬불가 많이 틀어줬으면…"
"찬불가는 사경 · 염불 · 독경과 같은 것"

이른 행복

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 그는 1986년 '이종만과 자유인' 이란 그룹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을 발표한다. 1집 앨범이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음반이 발매되고 약 1년이 지나서다.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그의 노래는 198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공전의 '히트' 를 한다. 20대 중반, 그는 이른 나이에 뮤지션으로서 성공한다. 대중의 사랑은 달콤했고,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었다. 너무도 냉혹한 '조건' 을 필요로 했다. 또한 그 사랑이 만든 조명도 영원하지 않았다. 대중의 마음속에 선명했던 그의 이름은 차츰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를 비추던 조명도 꺼져가기 시작했다. 이른 나이에 뮤지션으로서 성공을 맛보았던 그는 갑자기 다가온 어둠 속에서 당황했고, 또 한 번 방황하기 시작한다.

이른 어둠

이른 나이에 성공의 행복을 경험했던 그는 이른 나이에 어둠의 시간을 맞는다. 1990년대 초 3집 앨범을 끝으로 그의 이름은 대중들로부터 멀어진다. 또 다시 어두워진 시간, '인기' 를 먹고, 밝은 조명 속에서 살았던 젊은 뮤지션이 견디어 내기엔 힘든 시간이었다. 그동



그는 2010년부터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이종만은 …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9년 포크 음악 모임 '참새를 태운 잠수함' 으로 활동을 시작해 1986년 그룹 '이종만과 자유인' 으로 1집 앨범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발표했다. 2집 '신사와 청바지', 3집 '나의 선택' 을 발표했고, 2002년 4집 '종로 아저씨' 를 발표했다. 1996년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좋은 벗 풍경소리' 를 만들어 찬불가를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두 차례의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행원문화상을 수상했다. 2010년부터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와 음악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등축제 회향한마당 기획과 각 사찰의 산사음악회 기획 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연등축제의 노래 '오늘은 좋은 날' 과 '길 떠나자', 찬불동요 창작곡집 '풍경소리', '음악이 생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장돌뱅이' 등이 있다.

안 대중이 가져갔던 이름 '이종만.' 하지만 더 이상 대중이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순 없었다. 다시 찾아온 자신의 낯선 이름. '나는 누구인가' 로 방황은 시작된다.

"힘든 시간이었죠. 길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까요. 김민기나 한돌 같은 선배들이 가는 길도 멋있어 보였고,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매일매일 반짝이는 후배들이 가는 길도 부러웠죠. 다른 사람들의 길만 보이고 나의 길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이었죠."

첫 찬불 동요집

또 다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는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에 참석하게 된다. 불교학교에서 돌아온 후 그는 어린이 율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율동에 필요한 음악을 녹음해 주게 된다. 카세트 테잎에 직접 기타연주를 하며 찬불가를 녹음하고 있던 그들에게 제대로 된 사운드의 찬불가를 녹음해준 것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교사도 아이들에게도 모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찬불가가 이렇게 신나는 것인 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찬불가의 맛을 본 어린이 법회 관계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찬불 동요로 음반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10년 전 조계사 어린이 합주단을 할 때가 생각났어요. 힘들 때 들었던 아이들의 음악. 그리고 여름 캠프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제 노래가 떠올랐어요. 얼마 후 음반을 냈죠. 첫 찬불동요집이죠."

1995년 그의 첫 번째 동요집은 그렇게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풍경소리' 라는 이름으로 현재 36집까지 발표됐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풍경소리를 통해 발표된 찬불동요는 약 400여 곡에 이르고 그 중 그가 작곡한 곡은 약 100여 곡에 이른다.

그는 풍경소리 10집이 나온 2000년부터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한 찬불가를 만들기 시작한다. '부처님 오신날' 은 그때 만들어진 노래다. 그리고 그는 연등축제의 피날레인 '회향한마당' 을 봉축위원회와 함께 10년 째 기획해 오고 있다.

"노래 좀 틀어주세요"

그는 2012년 7월부터 '붓다 콘서트' 를 월 1회 진행해 오고 있다. 자신이 만든 노래를 비롯한 찬불가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그동안 그와 '풍경소리' 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해온 그가 바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 찬불가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언론에서 좀 더 간절하게 소개해 주고, 방송에서 많이 틀어달라는 것이다. 대중이 찬불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기회가 없으니 찬불가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무대가 '붓다콘서트' 인 것이다.

"음악의 힘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 형성에 대단히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부처님, 부처님' 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매일 매일 찬불가 들으면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확실한 불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불동요' 라는 말 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찬불가' , '어린이 찬불가' 라고 하고 싶어요. 어린이 찬불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요를 비롯한 모든 찬불가가 존재하는 의미는 '불교' 안에 있는 여러 신행과 수행의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경을 하는 일이나 염불을 하는 일, 경전을 읽는 일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는 벌써 내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사람 '이종만.' 이제 그의 이름 석 자는 공든 '탑' 이고, 그의 어깨엔 무너질 수 없는 업적이 쌓였다. 그는 "이제 전역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풍경소리' 36집 CD에 한참을 머물고 있는 그의 시선에서 그의 업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그는 2007년 두차례 개인콘서트를 여는 등 대중가수로서의 활동도 왕성하게 이어가고 있다.

전법일기

개구쟁이들과 백흥암 가는 길 위에서

영어 담마 캠프(5)

아이들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집에서 한창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깨우면 곧잘 일어난다. 졸리운 눈을 비비면서도 거뜬히 일어나는 녀석들이 기특하다. 하지만 오늘 개구쟁이 강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생님이 깨워도, 스님이 깨워도, 친구들이 깨워도 모르는 채 자고 있다. 포기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설법전으로 갔다. 여섯 분의 스님들이 맨 앞에 가사장삼을 수하고 예불을 이끌어 가노라면 아이들도 목청껏 큰 소리로 예불을 올린다. 예불이 끝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혜윤이가 "스님 얘가 괴롭혀요" 한다. '아니, 새벽부터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도대체 누구야?' 생각하며 보니 강주다. "강주! 너 언제왔니?" 그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던 녀석이 어느새와 웃고 있다. 교사들 모두는 웃음보가 터졌다. 개구쟁이들은 귀엽다.

오늘은 아침부터 백흥암 산행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일찍 아침을 먹고 모여 얼굴에 재피잎을 붙였다. 벌레를 아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다. 숲속을 걷다가 날파리가 눈에 들어와서 고생을 했다는 아이들은 숲속을 걷는 것을 두려워한다. 요즘 아이들은 절에 오면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벌레 때문이다.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서 움직이는 곤충들을 거의 본적이 없는 아이들은 여치 한 마리만 방에 들어와도 난리가 난다. 재피잎을 부치면 몸에 날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들이 달려들지 않는다는 지혜를 한 봉사자가 귀띔해줬다. 우리는 인디언처럼 얼굴에 재피잎을 한껏 붙이고 출발을 하였다. 한창 더운 날씨지만 여름 숲은 그늘이 많아서 인지 그리 덥지 않았다.



그림 · 박구원

백흥암은 얼마 전 '길 위에서' 라는 다큐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아이들에게 나의 은사스님이 사시는 곳이라고, 내가 스님이 된 곳이라고 했더니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이다. 1시간이나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 군데군데 물을 마시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모든 아이들이 걸어서 올라갔으나 저학년 중 몸이 약한 아이들은 차로 이동을 하였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은 난리가 났다.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겨우 설득은 했지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는 간다.

백흥암은 선방이고 지금은 안거중이다. 아주 조용히 해야 한다. 우리들의 시끄러움으로 스님들의 고요를 깰 수는 없다. 조용조용할 것을 몇 번을 당부하고 백흥암 도량에 들어섰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선방에는 20여 명의 스님들이 곧고도 당당한 자세로 앉아계신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은 발걸음을 조용조용히 하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개구쟁이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다.

우리도 대웅전을 참배하고 넓은 보화루에 조용히 앉아 잠시 명상에 들었다. 곧 죽비소리가 나고 방선시간이 되자 은사스님께서 나오셨다. 모두 3배를 드리고 "여러분 저의 은사스님이셔요.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보세요. 무엇이든지 좋아요"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든다. 과연 아이들은 무엇이 궁금할까?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 자우 스님 말썽 많이 피웠어요?" 은사스님께서 웃으시며 "얘들은 스님에게 관심이 많나봐" 하신다. 다음 질문도 재미있다. "자우 스님 야단 많이 맞았어요?", "스님 핸드폰 있어요?", "스님으로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하루 몇시간 참선하세요?", "왜 출가하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수박을 먹고, 물을 한병 받아 내려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빨라지기 시작한다. 서로 빨리 가겠다고 숲속을 달린다. 소나무 숲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설문지에 백흥암 산행이 가장 힘들었다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한 산행이라 힘들었겠지만 아이들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머물면 좋겠다. 푸른 산과 아름다운 꽃들, 좌선하시던 스님들로.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습관일 뿐"



불안한 뇌와 웃으며 친구하는 법

숀 T. 스미스 지음
정여진 옮김
불광 펴냄

이 책은 최신 뇌 과학의 성과와 함께 심리 상담가로서 저자의 풍부한 상담 사례가 담겨 있는 두뇌 사용 지침서이자 마음 사용 가이드 북이다. 불안한 마음이나 언짢은 기분, 자기 비판적인 생각은 왜 그토록 자주 우리 인생에 끼어드는 것일까?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제시한다. 책 곳곳에 수록되어 있는 14가지의 연습 과제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세상 아닌 내 마음

'마음이 고장 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음이란 늘 우리에게 뭔가를 들려주려고 하는 존재인데, 대체로 별반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들려주기 일쑤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두각을 나타내고자 하면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회의를 품게 하고, 앞날을 개척하고자 하면 마음은 우리를 과거에 가둬 버린다. 또 뭔가에 몰두하려고 하면 마음은 우리를 온통 산만하게 한다.

또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흠이 있거나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끔 한다. 이렇듯 마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독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떠안겨 희망하는 대로 살 수 없다고 믿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마음은 생존밖에 모르는 '걱정 기계'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존만을 '걱정'하기 때문에 '걱정 기계'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걱정 기계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시급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조상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린 덕분에 얻은 결과물이다. 즉 거친 원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조상들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성향까지도 후세에 전달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뇌 회로는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는 곧 우리의 의식 아래 들끓는 마음이 실은 원시 환경에 적합한 '원시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음은 겁이 많고, 자극에 민감하며, 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 기계'인 마음이 생존을 위해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4가지 패턴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것을 편향된 기억, 비장의 무기, 이중 잣대, 비관주의로 규정한다. 즉 과거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부각해서 똑같은 함정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고, 비장의 무기와 이중 잣대로 남들의 호감을 사도록 하며, 비관적인 생각으로 위험한 세상에서 위기를 관리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이 대처법으로 저자는 가치관 수립하기, 관찰 기술 습득하기, 마음의 요구와 반대로 행동하기, 마음의 '비장의 무기'를 알아차리고 대처하기, 마음이 틀릴 가능성 받아들이기와 같은 다양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인생 이끌기 위한 뇌·마음 사용설명서
우리 의식속 마음은 '원시적 마음'
현재의 마음작용 그대로 관찰 필요

체스의 말이 아닌 체스 판이 되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체스의 말이라고 간주해 보자. 체스에 백색 말과 흑색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에도 자신감과 행복감처럼 '좋은' 감정이 있고 불안감, 두려움, 슬픔처럼 '나쁜' 감정이 있다. 우리는 물론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을 무찌르기를 원하므로 좋은 감정 편에 서서 나쁜 감정이라는 적에 맞서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리고 체스 판에서 적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문제는 생각과 감정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더욱 강렬해진다는 점이다. 즉 싸우면 싸울수록 상대편 말이 더 강해지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인 셈이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어느 편도 아니라면, 즉 말도 선수도 아닌 체스 판이라면 어떨까?

일단 어느 한 쪽 편에 서면 마치 삶이 전적으로 승패에 좌우된다는 듯이 맹렬히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 그러나 체스 판이라면 이기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그저 말들이 놓인 곳, 즉 게임이 힘차게 펼쳐지는 맥락이기 때문이다. 체스 판의 입장에서는 좋은 팀도 나쁜 팀도 따로 없으므로 어느 한 쪽 편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저자는 이렇듯 체스 판의 관점에서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자신을(지금 여기) 몇몇 지나간 경험(그때 거기)을 근거로 좋거나 나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나(지금 여기) 그대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에 따라 마음과 반대로 행동하기

가치관에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 불편해진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요구와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관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여금 자기 의지에 반하여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끌어들인다는 의미다. 그러면 마음은 불안감, 슬픔, 불쾌한 생각, 신체 증상을 불러일으키면서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란 그저 마음의 움직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감정들은 곧 지나가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도덕경, 선사상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읽혀져

도덕경과 선

김가원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8천원



도덕경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유명한 고전 가운데 하나인 만큼 수많은 주석과 해설서들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고전으로 남아 있다. 무엇이 도덕경을 어렵게 만들까? 문장 자체가 함축적인 것도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무엇보다 도덕경을 경문 자체와 주석들에만 한정시켜 이미 틀 지워진 기존의 안목으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도덕경이 제시하는 광활한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한다.

이 책은 도덕경을 다른 동양의 고전들, 특히 불교의 선사상과 유가의 사상 등과 자유롭게 소통하여 통합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읽힌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적인 안목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얼마큼 도덕경이 말하는 핵심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저자는 동양의 고전과 경전을 올바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근본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마음수행의 관점에서 고전을 읽을 때 비로소 난해하게만 여겨지는 딱딱한 문장이 자기의 일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삶을 행복하게 이끄는 고마운 가르침임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경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노자와 내 마음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전제하고, 노자가 살던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사상적 토대 위에서 그의 사고와 언어를 바라보되, 역대로 마음을 깨달아 자유의 경지에 이른 성인들의 가르침을 도덕경 이해의 거울로 삼아 이를 내 마음 안에서 서로 소통시키고 회통하여 통합적인 안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목을 바탕으로 이 책은 도덕경의 내용이 불교의 가르침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구성되어 있다. 즉 도덕경을 도경(道經)과 덕경(德經)으로 구분할 때, 무를 핵심으로 한 도경은 반야부 계통의 경전 내용과 상통하고, 비어 있는 무의 덕스러움에 관한 덕경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도의 원력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불교의 사상, 특히 선사상을 드러내는 다양한 고사를 인용하여 도덕경의 내용과 접목하고 회통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양의 고전들, 즉 주역, 시경, 회남자, 장자, 논어, 맹자, 나아가 선비들의 개인 수필에 이르기까지 인용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도덕경 자체의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동양고전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다.

체제는 한 문제 때의 숨은 도인으로 알려진 하상공의 것을 따랐다. 각 장에 붙여진 체도(體道), 양신(養身) 등의 소제목들과, 전체 81장의 단락을 상하로 나누면서 상경을 도경, 하경을 덕경으로 이름 붙인 것도 하상공의 관점이다. 상경은 주로 도의 본질, 즉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하경은 도의 본질에 입각한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덕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도덕경과 불교 유사성 설명
마음 근본원리와 본질도 소개

편집의 순서는 먼저 본문을 소개하고 다음에 해석을 덧붙이면서 본문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고사를 선별 옛 문헌에서 취해 소개하였다. 동시에 행간의 뜻을 해석하면서 여러 교본에 따라 달리 채택하고 있는 낱말을 곁들여 배경에 깔려 있는 의미의 본질을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이렇듯 이 책은 도덕경을 도가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와 유가의 입장을 두루 섭렵해서 아우르고 소통시키면서 마음의 근본 원리와 도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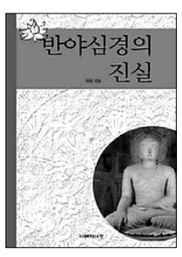
▲김가원

십대 후반에 해남 대흥사로 출가한 후 20여년의 산문 생활 동안 불교 내전을 두루 섭렵하고 선방에서 정진하였다.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선사상 전문지 〈선원〉 편집장 및 〈월간 해인〉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암(부여), 송담(광주), 무위당(부산) 등에게 고전을 사사 받았으며, 환속 후에는 고전과 불교경전을 강의하고 있다.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소설이 당선되었으며, '미래사회와 종교성 연구원'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대승불교 정수인 반야심경 쉽게 해설

반야심경의 진실

석암 지음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2천원



저자는 우주서적 여러 권을 읽으며 무척 놀랐다고 한다. 지금은 천문학과 물리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시대여서 우주의 놀라운 비밀을 서서히 밝혀내고 있다. 밝혀진 비밀의 내용이 어쩌면 대승불교의 사상과 반야심경의 내용인 공, 그리고 반야바라밀 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지 신기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반야바라밀의 이치는 반야심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광활한 우주에 펼쳐져 살아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우주에서 아직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암흑물질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공묘유의 도리와 다르지 않음을 알 때, 그 환희와 감동은 부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으로 이어져 간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우주의 융합인 다중우주는 극락세계를 현실적 상상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며, 부처님은 우주의 비밀을 지혜가 완성된 눈으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물이나 허공을 바라볼 때 방향과 높이가 모두 틀리다.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의 성격이나 자질, 그리고 생각들이 모두 다르다. 그래서 관측자마다 반야바라밀을 바라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야는 허공을 무대 삼아 고요히 숨어들어 있지만 관측자에 따라 이름과 모습들이 바뀌어져 왔다. 종교마다 교리는 달라도 심층적 차원에서 바라본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완성과 안락의 완성이라는 고차원의 세계를 이끌어 냈다. 이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은 비롯됨이 없는 우주에, 그리고 미지의 세계, 그리고 각기 다른 종교의 삶 안에 꽉 차 있어 자취 없이 활발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반야심경〉은 공을 나타낸 경전이다. 그러나 이해의 어려움에 빠져 공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저 텅 빈 공이 진공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게 된다. 〈반야심경〉은 공을 통해, 공을 활용하고 무대를 삼아 반야바라밀의 진실을 모아 놓은 경전이다. **김주일 기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비밀

조지 베일런트 지음 | 최원석 옮김
21세기북스 펴냄 | 2만1천원



과학이 발달하여 평범한 사람도 100세까지 사는 시대이다. 그런데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일생 동안 어떻게 변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지금까지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 청소년기의 성장이나 건강과 생활습관의 연관성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75년간 지속적인 관찰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대해 연구해온 '하버드 그랜트 연구'는 독보적이고 전례가 없는 귀중한 연구이다. 저자는 42년 넘게 총책임자로 이 연구를 이끌어온 장본인이다.

이번 책은 바로 그 '하버드 그랜트 연구'의 75년에 걸친 연구 성과를 통해 밝혀낸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 어린 시절, 외모, 지능, 신체적 건강, 직업, 결혼, 정치, 종교, 방어기제, 그리고 음주에 이르기까지.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중년에 바람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보낸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리고 어린 시절 겪은 불행은 이후의 삶에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의 좋은 기억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는 것 등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칠십대 이후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사실과, 80세 이후의 신체적 노화는 유전적 영향보다 50세 이전에 형성된 습관들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은 유전적 영향보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려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 외에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장수하는 이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 등과 행복 상관관계도 일러준다.

김주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 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 종 안 내

• 승적원부 (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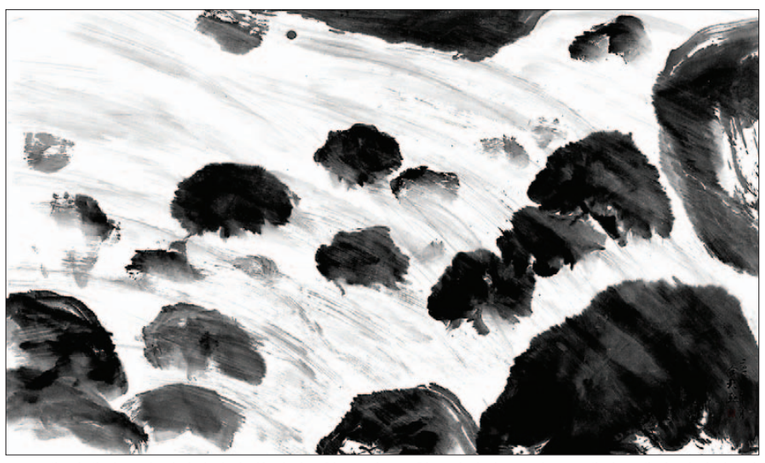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묵향과 여백 사이서 찾은 '休'

김대열 교수 '상회지상' 전…9월 25일~10월 1일



동국대 김대열 교수의 '상회지상' 전이 9월 25일~10월 1일까지 공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사진은 김대열 作, 천명풍동(川明風動)

반복적이고 숨 가쁜 일상생활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휴식의 미학, 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시가 열린다. 김대열 작가(동국대 한국화 전공 교수)의 수묵화전 '상회지상(象外之象)' 전이 공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된다. 9월 25일~10월 1일 열리는 전시에서 김 교수는 담백하고도 절제된 수묵화 기법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수무상형, 별유동천, 천명풍동, 석본무성, 천지화동, 삼한의적, 운고기정 등의 작품은 거침없는 필력의 속도감과 세련된 공간운용의 여백미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현대문인화로 풀어내는 선화(禪畵)의 세계를 보여준다.

세차게 바람을 가르며 내려솟는 시원한 냇물 그림에 '천명풍동(川明風動)' 이란 제목을 붙였고, 마음이 한가로우니 뜻 한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내용의 '심한의적(心閑意適)' 역시 전통이나 법도에 구애 받음 없는 과감하고 세찬 필치가 돋보인다.

지극히 간결한 선묘와 최소한의 색채로 완성하는 선화는 정제된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화폭에 담아낸다. 과감하고 세찬 기운이 넘치지만 거칠지 않고, 미려하고 한없이 부드럽지만 유약하지 않은 곡선, 농묵(濃墨)과 담묵(淡墨)의 적절한 조화는 중도의 길을 찾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이번 전시의 평론을 쓴 〈월간 미술〉 이건수 편집장은 "무의식적이고 자동기술적으로 보이는 김대열의 일획일필(一劃一筆)은 그가 체득한 도(道)랄까 신운(神韻)일까 하는 것, 다시 말해 생명의 기운을 단속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때문에 그의 화면은 선적(禪的)인 뉘앙스를 짙게 풍긴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열 작가는 그동안 북경 · 서울 · 대만 등 국내외 주요 갤러리에서 13회의 개인전과 100회 이상의 기획 단체전을 가졌다. 현재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 교수로서 동국대 동서미술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 (사)한국체육진흥회 이사 · (사)대한구조봉사회 이사 · (사)한국미술협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02)735-993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국 불화의 현대화·대중화 꾀한다

4회 회원전 여는 '불화이야기'

불화 전수의 새로운 모델 제시





전통불화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불화이야기가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에서 제 4회 회원전을 연다. 작품은 조인숙의 '금니수월관음도' (사진 왼쪽)와 조해종의 '삼세후불탱'

불화는 스님이나 전문 불화가만 그리는 특별한 그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 되는 불화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불화의 현대화를 펼쳐가는 이들이 있다. 문화강좌 수강생에서부터 전문 불화가까지 불화이야기(회장 장부영)는 신심을 바탕으로 불화를 세상에 알려가고 있는 모임이다.

지도강사 전연호 씨(일섭문도회 회장)를 필두로 14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불화이야기는 전통불화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동시에 꾀하며 꾸준히 불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제 13전시실에서 불화이야기 제 4회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23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석가 삼존도, 꽃이 피네, 금니 수월관음도, 백의 관음도 등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지도강사 전연호 씨는 "아마추어로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16명의 작가가 입문을 했을 만큼 성과가 크다. 대부분이 신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나가니 이런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작 중 조해종(중요무형문화제 제 118호 불화장 이수자)의 삼세후불탱은 정교하고도 수준 높은 작품이다.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약사여래불, 서방정토 아미타여래불을 표현한 작품은 후불탱의 진수를 보여준다. 조인숙의 '금니수월 관음도' 는 고려의 수월관음도를 바탕으로 상호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표현했다.

문화센터강좌로 시작해 작가 양성
14년 동안 200여 회원 다녀가
9월 24~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서
석가삼존도 등 23점 선보여
전통 바탕에 현대성 가미한 작품



불화이야기는 14년전 문화강좌로 시작해 현재 16명의 불화가를 배출할 만큼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 씨는 불화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화는 종교적인 그림으로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통성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현대 불화가 과거 불화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통성을 유지하되 상호 등에서 현대적인 의미를 가해 변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 새로운 불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불화이야기는 대구불교방송 문화센터 강좌로 시작해 현재 불광사 경북불교대 문화센터까지 자리를 옮기며 14년 동안 200여 명의 회원이 거쳐 갔다. 강좌 초기만 해도 불화가 일반인들에게 무속 그림으로 인식되는 등 선입견이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각종 미술대전에 불화 부분이 신설되는 등 불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불화이야기 회장 장부용 씨는 불화 그리기는 기도하는 마음과 같다고 전한다. "저는 6년째 불화이야기를 통해 심신을 다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정진하는 수행의 한 과정으로 불화를 그리고 있죠. 부처님의 다양한 상호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일이지 싶어요. 또 집중하고 삼매에 빠지다 보니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불화이야기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각 사찰에서 채색 봉사활동이나 탱화 보시 등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기도 하다.

속도의 경쟁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불화는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숙식을 같이하며 그 기능과 정신을 이어받던 도제식 전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불화이야기의 성과는 크다. 문화강좌라는 가벼운 수업으로 시작해 전문작가 배출까지 이르는 불화이야기는 불화가 대중화를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수 방법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053)606-6114

정혜숙 기자

가을, 남산길 걸으며 힐링하세요

BBS 남산걷기대회 · 북콘서트 개최… 9월 29일 동국대 일대서

BBS 불교방송은 9월 29일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 북측 순환로 일대에서 '책 읽는 가을 남산길 산책' 행사를 개최한다.

개국 23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불교방송 시청자와 청취자, 후원자, 스님과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가, 1부 걷기대회와 2부 북 콘서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걷기대회는 걷기와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산책길 곳곳에 명상 주제가 담긴 '걸어가는 게시판' 이 설치된다.

2부 북콘스트에는 불서 작가 스님들이 출연해 대중들과 훈훈한 시간을 갖는다.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의 저자 월호 스님, 〈걱정말고 기도하라〉의 법안 스님, 그리고 〈치유하는 불교읽기〉의 서광 스님이 출연한다. 사회는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재' 에 고정 출연 중인 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맡는다.

행사 참가비는 무료이며 행사 내용은 BBS-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다. (02)3446-4464

정혜숙 기자

조형언어로 해석한 '心' 의 실체

해인아트프로젝트…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가 주최하는 '해인아트프로젝트' 가 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특별행사로 열리는 이 행사는 '마음(心)' 을 주제로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홍콩 등에서 30여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통 사찰과 자연 그리고 현대미술의 조화를 모색한 평면 · 입체 · 미디어 · 설치 등 7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실체가 없는 '마음' 을 독특한 조형언어로 해석해 형상화한다.

특히 사찰 경내는 물론 성보박물관 가야산 홍류동 계곡에서 해인사까지 이르는 6㎞ 거리의 탐방로인 소리길에도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이다.

스페인 · 인도 등 30여 명 작가 참여
해인사서 소리길까지 70작품 설치

쉴파 굽타는 소리길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에 작은 메시지들이 담긴 돌 조각 100개를 바닥에 놓고 관람객이 발에 밟히는 돌에 새겨진 단어들을 읽어가면서 기억을 되짚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100 스텝스(100 Steps)' 라는 작품을 설치한다.

렁 미핑은 스님들이 깎고 남은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2천 개의 어린아이 신발로 이뤄진 작품 '미래를 기억하다 2013' 을 출품한다. 윤석남은 학대받고 버려진 유기견의 아픔을 달래고자 5년여에 걸쳐 제작한 설치작품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를 소리길과 해인사 경내에 설치해 유기견들이 자연의 품에서 슬픔을 치유하고 극락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고려 시대까지 이어져 오다 조선시대에 사라졌던 검은 도자기 흑유를 되살려낸 도예가 청곡 김시영은 검은 달항아리와 드로잉을 선보이고 뮌은 해인사 대적광전 앞마당에 서 있는 정중탑 표면에 영상을 투사한 작품 '긴 채움' 을 내놓는다.

정혜숙 기자



'해인아트프로젝트' 가 9월 27일~11월 10일 해인사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해인사 정중탑 표면에 영상을 투사한 뮌의 '긴 채움'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17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9일, 10월 26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양곤 / 바고 / 시리암(내셔널빌리지) – 5일 9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6일, 10월 23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 + 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석불상의 영기좌는 양감으로 승부한다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연화좌(蓮華座)→영기좌(靈氣座) ㊦



석불상의 영기좌는 양감으로 승부한다.

그러면 연꽃이 왜 연꽃이 아닌지 석불에서 알아보기로 하자. 불상조각의 연꽃대좌를 보면 단판[單瓣: 잎이 하나인 것: 瓣(꽃부리를 이루고 있는 낱낱의 조각. 꽃잎을 말한다)]이거나 복판[複瓣: 잎이 둘인 것]이라는 용어로 가리키는 연꽃잎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계에서는 복판을 보면 꽃잎이 하나인데도 두 꽃잎이란 복판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조형미술에서 꽃잎이 하나인데 하나의 불룩한 양감 있는 타원체가 있으면 단판(單瓣)이라 부르고, 하나의 꽃잎에 두 개의 양감 있는 타원체가 있으면 복판(複瓣)이라고 부르니 이들 단판과 복판의 용어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그림①)

그러므로 단판(單瓣)이나 복판(複瓣)은 일본인이 만든 옳지 않은 용어를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따르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판이나 복판의 조형 역시 현실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영기가 가득 찬 영화(靈化: spiritualization: 정신적으로 승화된 현상을 말한다)된 영기꽃이지 연꽃이 아니다.

삼국시대에는 양감이 있는 볼록한 타원체가 하나인 것이 널리 유행하였다. 그러나 하나 있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게 보여서인지 삼국시대 말부터 타원체가 두 개 있는 것을 몇 작품에 표현하다가 통일신라시대부터 하나의 잎에 양감 있는 타원체가 두 개 있는 조형을 선호해왔다. 흔히 연화좌의 연꽃은 진흙 속에 나서도 물들지 않는 덕이 있으므로 불보살의 앉는 자리를 삼는다고 말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빗나간 세속의 설명인지 알 수 있다. 여래나 보살이 앉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존재로 홀연히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게끔 하는 자리이므로, 옛 장인들은 영기좌의 조형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앞서 금동불의 영기좌를 간단히 다루었지만, 이번에는 양감으로 영기꽃을 표현하려한 석불(石佛)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석불인 경우에는 20센티 내외의 작은 금동불 같은 불상을 만들 수 없으며 대체로 등신대(等身大)나 장육불(丈六佛) 즉, 여래의 키는 1丈6尺(약 5미터)로 만들도록 규정하여 놓았다. 보통 사람 키의 두 배라고 하나 그런 기록도 믿기 어렵다. 2미터 50센티미터 키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8이라는 무한한 상징을 띤 숫자의 두 배를 삼은 것이 16 즉 1장6척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큰 불상을 만드는 데에는 화강암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재료이다. 화강암의 입자가 커서 정(釘)으로 치면 파편으로 부분이 날라 가기 쉬우므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정교한 조각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옛 장인들은 양감(量感)으로 승부를 걸었으므로 여기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양식이 창조되었던 것이다. 석굴암 본존은 그렇게 하여 탄생하였다.

헬레니즘기의 대표작 '라오콘 군상'은 거칠고, 격렬하며 강렬한 드라마틱한 인상을 주는 헬레니즘기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는데, 라오콘이 그의 아들들과 죽음을 앞두고 뱀과 맞서 싸우는 고통의 순간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18세기 독일 미술학자 빙켈만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다.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이 표현되어 있으며,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이상이라고. 그러나 작품을 실제로 보면 빙켈만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작품의 양식과 해석은 전혀 맞지 않다. 그 작품을 보고 있으면 '역동적이지만 번잡하고 시끄럽다' 빙켈만이 한 말은 오히려 석굴암의 건축과 조각에 걸 맞는다. 석굴암의 예술이야말로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 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8세기 중엽의 석굴암 본존의 영기좌는 매우 단순하다.(그림②-1, 그림②-2, 그림②-3) 상대와 하대의 영기꽃잎이 같다. 즉 '하나의 잎 모양마다에 하나의 양감이 풍부한 타원체' 를 넣어서 이러한 영기좌에서 석굴암의 본존이 탄생하는 것이다. 9세기 때의 비로자나 석불에 이르면 영기좌의 하대 영기꽃은 단순하다.(그림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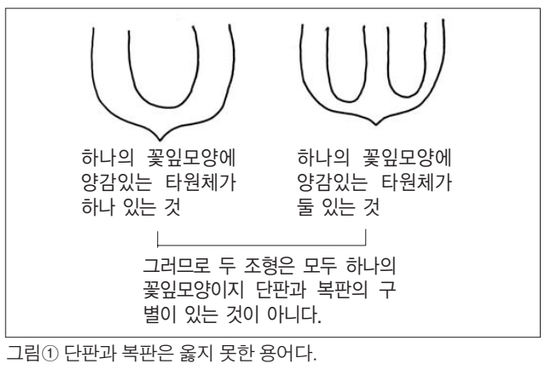
하대(下臺)의 영기꽃은 '하나의 꽃잎 모양에 두 개의 양감이 조금 덜한 타원체' 가 있으므로 학계에서 말하는 복판(複瓣: 두 꽃잎)은 올바르지 않다.

상대(上帶)의 복잡한 영기꽃과, 영기꽃의 실상(實相)은 다음 회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②-1 석가여래 본존



그림① 단판과 복판은 옳지 못한 용어다.



그림②-2 본존 영기좌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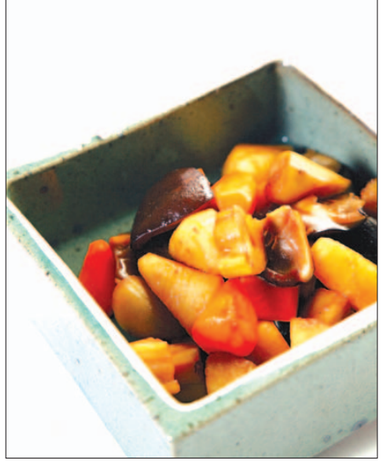
그림②-3 영기좌 부분, 한 개의 꽃잎에 한 개의 타원체가 있다.



그림③ 비로자나불 영기좌, 통일신라 9세기. 하대의 영기꽃 한 잎에 두 개의 타원체가 있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찻물로 뿌리채소의 맛 살려요



황차 뿌리채소 곤약조림

△재료(4인 기준)

○ 우엉 1뿌리, 연근 100g, 마 100g, 당근 50g, 표고버섯 3장, 곤약 50g

○ 조림장

황차우린물 4컵, 국간장 2큰술, 간장 2큰술, 조청 2큰술, 솔잎 효소 2큰술,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우엉은 칼등으로 껍질을 벗긴 후 2cm 정도의 길이로 다각형 썰기한다.

② 연근, 마, 당근은 사방 2cm 정도의 크기로 썰고 표고버섯은 4등분 한다.

③ 곤약은 사방 2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준비한다.

④ 냄비에 황차우린물을 넣고 우엉, 연근을 넣어 10분 정도 부드럽게 삶은 후 마와 당근, 곤약, 표고버섯을 넣고 양념장을 넣어부드럽게 졸여낸다.

잣즙 소스의 더덕 샐러드

△재료(4인 기준)

○ 깐 더덕 200g, 소금물 약간

○ 배즙 5큰술, 매실청 2큰술, 잣가루 5큰술, 소금 1/3작은술, 흑임자 2작은술

△만드는 법

① 더덕은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저민 후 밀방망이로 밀어 손으로 가늘게 찢는다.

② 잘게 찢은 더덕은 엷은 소금물에 살짝 담궜다가 물기를 꼭 짠다.



③ 곱게 갈은 잣가루에 배즙과 매실청, 소금을 넣어 골고루 잘 섞는다.

④ 더덕에 소스를 넣고 버물린 후 흑임자를 넣어 한 번 더 버무려 담는다.

섬유질 풍부한 더덕 기관지에 좋아

우엉은 셀룰로오스나 리그닌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정장작용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동맥경화를 막고, 식이섬유는 장내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대장암 예방에 좋고, 이눌린은 간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뇨 작용과 혈당치 저하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우엉에는 다양한 약효와 이용법이 있는데 고기를 먹고 나서 생기는 식중독에는 우엉을 달여 마시면 효과가 있으며 벌레 쏘인데, 땀띠, 부스럼 등에는 뿌리와 잎을 간 즙을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있다.

특유의 향을 살리는 요리를 하고 싶을 때는 우엉을 기름에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단맛이 증가하고 풍미가 더욱 좋아지게 된다. 특히 우엉의 감칠맛은 껍질에 있기 때문에 흑이 묻은 것을 구입하여 표면만 살짝 씻거나 칼등으로 살짝 긁어내는 정도로 한다.

뿌리 채소조림을 할 경우 일반 다시마 국물을 사용할 경우는 감칠맛이 있어 좋고 황차 등 찻물을 우려 이용하게 되면 담백하면서도 특유의 향을 모두 살릴 수 있어 좋다.

더덕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장내의 정장작용을 촉진시켜 배변을 좋게 하고 혈장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낮추고 혈당을 저하시키며 수은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무기물과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며, 사포닌과 이눌린 등의 측수 성분은 폐와 신장을 보호하는데 한방에서는 폐기능을 향상 시키는 기관지의 보약이라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

더덕으로 샐러드를 만들 경우는 더덕의 쌉싸름한 맛을 살리는 것이 좋으므로 소금물에 오래 담가 두지 않도록 하며 설탕보다는 맛이 부드러운 배즙을 넉넉히 넣어주는 것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급) 소 식

평화통일사

소승 일선은 1971년 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종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승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1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2천평 황무지를 또 개발하여 이차돈 성사님의 순교탑을 건립하다 자금란으로 중단하여 이 불사를 완공하고자 신문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의논하고자 합니다.

※ 양도 금액은 원하시는 뜻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사문 윤동암 씀.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 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문산기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2,000부 이상 @ 8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26.5cm
•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사이즈입니다.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650 원
• 2000부 @600원
• 100부 @800원
• 규격 : 9.5cm×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450 원
• 2000부 @400원
• 100부 @600원
• 규격 : 8.9cm×9.5cm • 매수:16장



찬불가

시명스님
스님은 다수의 방송 출연과 대구불교교육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영축불교교육대학, 동국불교대학등 여러 불교대학에서 찬불가 및 불교음악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해인사, 불영사, 관음사 등 여러 사찰의 합창단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부산 청은정사에 주석, 여러 불교대학에서 강의 및 집필과 작곡, 좌선, 명상 등 독락(獨樂)에 빠져있음.

CD1	CD2
1. 집회가	1. 관세음보살
2. 삼귀의	2. 당신의미소
3. 찬불가	3. 부처님은 이르시네
4. 보현행원	4. 성불을 위하여
5. 청법가	5. 연꽃피어 오르리
6. 사흥서원	6. 우리도 부처님같이
7. 산회가	7. 진리의 빛
⋮	⋮
17.성도재의노래	16.홀로 피는 연꽃



시명스님 찬불가
CD1/CD2
₩6,500
해설 · 가사책 수록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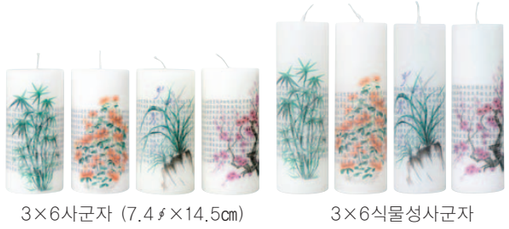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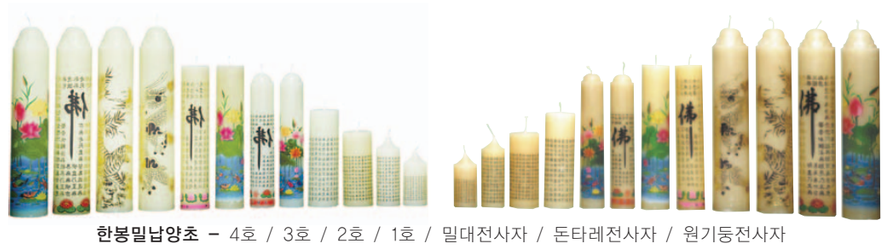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cm)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금강경과 법철학 ㊤

출세간법과 세간법…인간사 모든 진리 담겨 있어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지난 주 금강경과 정치철학에 이어 이번주에는 본각선교원에서 진행하는 금강경과 법철학을 만나본다. 2주에 걸쳐 불법의 핵심이 담긴 금강경과 현대 사회의 법을 비교 통찰해 본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고준환 교수는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기대 법학대학장과 교수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며 본각선교원장이다.

부처님 설법의 핵심

본각 선교원의「금강경과 법철학」강좌는 불교대승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중심으로 한 불교철학과 세간의 평화질서로서 법에 관한 철학인 법철학을 비교 통찰하여 진리에 도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 견성성불을 하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부처님의 법은 달마(Dharma 출세간법)라 하고, 세간법은 러-(law 세간법)라고 달리 부르나, 기본은 자연과 인간에 관한 진리와 정의를 말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법은 같은 점도 있으나 차이점도 많다.

지금부터 약 2천6백년 전에 석가모니는 인도 붓다가야 대각사 자리에서 보리수 아래 길상초를 깔고 가부좌로 앉아 새벽별을 보고, 큰 깨달음에 이르셨다. 대각을 하신 석가모니는 인연과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47년간 법을 설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셨다.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법은 8만대장경으로,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이 순차적으로 설해졌다. 이는 말에 의한 진리라 하여 의언진여(依言眞如)라 한다. 또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외별전으로 마하가섭에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말을 떠난 진리(이언진여, 離言眞如)가 있으니, 그것이 유명한 선문의 3처전심인 것이다. 영산회상 거염화, 다자탑전 분반좌, 사라쌍수 곽시쌍부가 그것이다.

〈화엄경〉의 '화엄게'(야마천궁 게찬품)와 〈열반경〉의 '열반게'를 봄으로써, 석가모니 법의 핵심을 짚어보자.

〈화엄게〉
사람이 3세 일체불을 끝내주게 알려면, 일체가 마음이 만든다는 것(一切唯心造) 전존재의 성품이 이 같음을 마땅히 보라. 마음은 화가(工畵師)와 같아서 능히 세간의 모든 것을 그릴 수 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열반게〉
제행은 덧없으니 이것이 생멸법이요.
생멸이 이미 멸하니 적멸락(寂滅樂)이로다.

이를 보면, 부처님 법은 존재의 절대면으로 일심적 멸뿐이고, 존재의 상대면으로 보면, 인연과보의 원리로 돌아가는 생멸의 세계는 무상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세간법과 세간법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부처님의 출세간법은 불이법, 무위법, 무소유법, 무소득법, 무상법, 무주법, 공법, 구족법, 출세간락이라 할 수 있고, 세간법은 이분법, 유위법, 소유법, 소득법, 유상법, 주착법, 색법, 부족법, 세간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 의미는 본론에서 다룬다.

불교철학의 중심 금강경

금강경은 '한마음' '적멸락' 불이중도(不二中道), 무주(無住), 무상(無相)의 사상을 담고 있는 불교철학의 중심이다.

금강경의 대의는 제3분 '대승정종분'에 기술되어 있다. 구류중생인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 받아서 무상의 깨달음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성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다.

금강경 제1분은 "이같이 내가 들었다"(如是我聞)로 시작한다. "이같이" 할 때 이미 우주의 진면목은 드러난다. 찰라생 찰라멸 하는 그 바탕 뿐이다.

불경들의 첫머리가 여시아문으로 시작되는 것은, 석가모니를 오래 시봉한 아난존자의 겸손함은 물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함을 나타낸다.

"어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 차례로 밥을 빌었다. 그리고 본 곳으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것이 유명한 금강경의 머리 제1분 전문이다. 너무나 평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밥 빌고 밥 먹고 발 씻고 자리에 앉는 등 일체가 진여일심 자리를 여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제5분에는 금강경 4구게의 하나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가 들어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모두 허망하니,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찰라생, 찰라멸이고, 연생연멸(緣生緣滅)이며 환생환멸(幻生幻滅)이므로 근본적으로는 불생불멸이고 적멸이라는 것이다.

제10분 장엄정토분(莊嚴淨土分)에는 여래가 연등불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 없고(眞無所得), 보살이 국토를 장엄한다고 할 수 없다.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곧 장엄함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라. 모든 보살마하살은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물질에 마음을 내지말고 성향미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이 분에도 금강경 4구게가 있으니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다. 마땅히 머물지 말고(집착없이, 放下着)마음을 내라는 것이다.

이상 적멸 제14분은 형상을 떠나면, 적멸(생멸이 멸한 자리)에 이른다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강경을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제일희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상(我相, 나라는 생각), 인상(人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衆生相, 뭇생명이라는 생각) 수자상(壽者相, 수명이 있다는 생각)이 없는 까닭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인욕바라밀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일 뿐이다. 수보리야 왜 그러냐하면,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찢길 때, 내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옛날에 마디마디 4지를 찢기고 끊길 그때, 만약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니라.

제17분 '구경무아분'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고정된 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인연과보 원리에 따라 인연가화합으로 뜬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한다. 인연아(因緣我)다. 인연아는 몽중아(夢中我, 꿈속나)와 같아서 일체 현상이 꿈속의 일과 같음을 의미한다. 물론 비인연아(非因緣我)인 진여, 즉 부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6분은 '법신비상분'으로 법신불은 형상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하면
이는 곧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여래를 볼수가 없느니라

제32분은 금강경의 끝으로 '응화비진분', 즉 응화신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금강경이나 사구게등을 수지독송하여 남을 위해 연설하면 그 복이 무량아승지세계에 가득한 7보로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걸 뜻한다. 어떤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현상에 끄달리지 말고, 여여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不取於相 如如不動). 마지막 금강경 4구게를 통해 이를 보충해본다.

일체유위법여시 一切有爲法如是
몽환포영노전운 夢幻泡影露電雲
운간청천고금동 雲間靑天古今同

일체 현상계의 생멸법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구름같은데도 구름사이 푸른 하늘은 지금과 옛날이 같더라는 이야기다.

출세간법은 불이법, 무위법
세간법은 이분법, 유위법
다른 듯 보여도 자연에 대한 진리 설해

법은 물의 흐름과 같고
사회 평화질서 지키는 일
이는 불법과 모두 상통해

세간 법철학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법철학〉책 머리글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야 날기 시작한다"고 썼다. 철학은 사태가 일정하게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이 명징해지는 걸 뜻한다. 학문의 회색성이다. 학문은 도(道)와는 다르다. 이는 분별과 생각의 산물이 정리되는데 2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기도 하다.

인간의 세간살이는 복잡다단하다. 더욱이 서양격언에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켜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런데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은 제한돼 있는 반면, 욕망과 소유욕은 무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려면, 일정한 기준이나 길이 필요하다. 인간이 걸어가야 할 당연함, 즉 당위(must, sollen)를 규범(規範)이라 한다. 규범(Norm)에는 임의 규범(임의로 양심상 지키면 좋으나 안 지켜도 제재가 없는 규범)과 강제규범(지키지 않으면, 국가 등이 강제로 제재하는 규범)이 있다. 임의규범은 도덕규범이라고도 하며 윤리규범을 포함한다. 삼강오륜이 아닌 사회3륜, 불피해행(不被害行 남에게 해를 주는 행위를 피함), 인격예우, 약속준수가 사회 도덕적으로 절실히 요청된다.

인간사회의 강제규범은 법(法)규범이다. 국가권력 등에 의하여 법 실현이 보장된다. 그러나 권력은 선하기도 하지만, 악마적 성격이 강하다. 원래 법은 한자로 鹿法로서 水(?)물수 +鹿(해태치) + 去(갈거)자로 파자해 볼 수 있다. 이는 불의를 보면 들이받는 정의의 외뿔을 가진 해태가 냇물을 따라감을 뜻했다. 법은 물의 흐름과 같다는 것이다. 노자 또한 상선약수(上善若水)라 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였다.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질서이다. 법철학의 역사적 주제는 정의와 힘과 법의 관계였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하였고, 법실증주의자들(실정법만이 법이라는 주장자들)은 권력자의 의지 실현이 법이라고 보고, 법 발효의 근거를 힘이라고 보았다. 국민들은 선한 권력을 원하나 선한 권력이 가능한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정의는 사람에 따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절대적 정의와 상대적 정의 등으로 나눈다.

평균적 정의는 당사자 사이를 등가관계로 유지하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이고, 배분적 정의는 각자의 능력과 공적에 따라 개인차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비례적 평등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ubi societas ibi ius)'는 말도 있듯,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하여 독배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동물(Zoon Politicon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정의는 인간 최고의 덕이며, 일반적 정의는 공동생활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특수적 정의는 각인의 이해배분을 구체적 사례에 따라 평등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나 울피아누스는 "정의는 각자에게 그 권리 몫을 분배해주는 영원한 의사"라고 하였다.

중세봉건시대 이전엔 왕권신수설에 입각하여 절대적 정의를 논하기도 했으나, 근세 문예부흥이 일어나면서 상대적 정의론이 득세했으며, 파스칼은 팡세에서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의 정의가 저쪽에서는 부정의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법 철학자 G.라드부르흐는 정의는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이 요청된다 하였고, R.파운드는 정치적 조직체의 사회통제가 법이고, 인간들의 욕구 등을 사회통제를 통화여 조직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다.

칼 맑스는 역사를 계급투쟁사로 보며 노동의 잉여가치론을 중심으로 생산력이 생산구조를 결정하는데, 생산구조가 하부구조이고, 법등 문화는 상부구조라고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택동은 인민민주전정에 따라 노농계급의 합작사를 거쳐 인민공사체제로 가서 평등적 정의를 시현하려 했으나 중단되었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아신 수완나
명상 힐링 캠프

명상힐링으로
스트레스도 비우고
깨달음도 경험해 보세요

일 시 : 2013. 9. 28(토)오후 2시~29(일) 오후 3시까지
장 소 :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적멸보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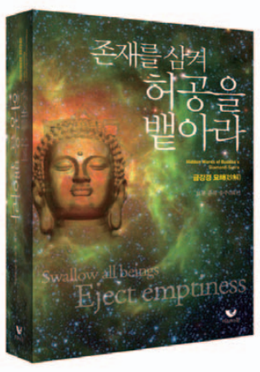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복
힐링교본 : "해탈 그리고 닙바나" (법보시 증정함)
프로그램 : 고통알기와 비우기/나를 바로보기/멈춤과 관찰/깨달음 체험하기/내안의 부처만나기
(힐링캠프에 동참하신 분에게 수료증 수여)

수행지도 : 아누다야선원장 수완나스님
수행유나 : 심원사 주지 삼무스님

입 재 비 : 1인 5만원
접 수 처 : 길상암 종무소 : 055) 932-7268
계좌번호 : 농협 843173-51-026991(예금주:길상암)
접수마감 : 2013. 9. 27까지

법보종찰 해인사 길상암 감원 광해 합장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 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바른법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승님, 목숨 있는 이도 목숨 없는 이도 죽습니다. 보물지기도 보물지기 아닌 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길눈이 밝은 이도 밝지 않은 이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란 하나의 부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을 따라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행운이 오는 것입니다.

– 본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우울증,각종심리치료와 최면의 전과정 실기위주 속성요점 강의
- 배웠으나 활용 안되는 분 환영
- 교재 제공 (7회 완성) 출장가
-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부산 현불사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불교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 전 교 육
– 사물 (태징, 목탁, 송주북, 정근북, 법고)
– 천수바라, 작법(나비무), 49재, 천도재, 점안등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대진 합장
010-7579-8200

사주학 성명학 수강생 모집
초보자도 빠른 이해 강의
용신 및 격국 중점강의
통변과 실전을 겸한 강의
수강문의 010-3711-5072
(수도권, 영남권)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빙의 치료 영가 퇴치
가출 청소년 치료
그 자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1-887-1894
010-7166-8873

포교원, 사찰 같이
불사하실 분 모십니다
(경북 봉화군)
* 땅은 현재 있음, 스님 및 무속보살님도 환영
011-717-531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김해)
011-9514-3721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여 정진할
도반 및 비구니
스님 모심
010-4924-3722

신심이 돈독하고
가족처럼 지내실
종무원을 기다립니다
– 운전, 컴퓨터 가능자
– 숙식가능, – 45세 이하
전남 화순 쌍봉사
061)372-3765

기도, 수행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산, 포교원)
010-9036-21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 부부도 환영)
010-8576-4450

구 합 니 다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아주작은
토굴, 암자 구함
* 전세, 매입 원함
010-5257-9339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불사 함께 하실 분
주지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부산)
051)248-20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633-8445

당뇨, 혈압
각종 난치병
치유 가능
합니다
010-4547-0023
해도 승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총무스님 010-5511-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구례 화엄사)
010-3639-966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10-3189-8745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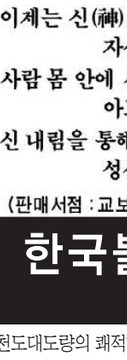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0-1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사업자번호 : 615-82-71773 (한국불교재단)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010-5789-6630
사업부계좌 : 농협 302-0587-1926-11 이창민
(사)대한불교삼보종 총무원 사업본부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 비 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수륙영가천도
조상영가 태아영가 천도
부산 ↔ 일본오사카
일본오사카 ↔ 부산
우환,우울증,신경쇠약,불면증,비만,알콜중독,가족갈등,변비,악몽,가위눌림,중풍,치매,암예방 등 모든 어려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수륙천도재
선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관광이 아니고 천도가 목적임. 좋은 일이 일어남.

특 강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우리말 천수경 특강을 들어보시면
불교수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상 제사 잘 모시는 방법 지도
대학입시기도, 사업성공
촛불을 잘 밝혀야 기도가 잘 됨
010-3815-7162
풍수지리 수맥탐지 정 태 철
010-2797-1633
인터넷 : 꿈바위 불교교육원 검색. 불교 TV 꿈바위 활동
지역사회 활동할 분 특별기도. 가정집에서 포교활동 하실 분
노인점심식사, 쌀, 라면 보시자는 기도해 드림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010-6789-5008 대전 · 서울 · 부산 · 대구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광불사
• 주 지 : 신종현 (원각)
재산관리인 : 양명희
신도회장 신종렬 외 신도일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113-4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듣기 싫어 하는 말을 하지 말라.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 버리듯,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운명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 잡아함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20
- 법당 : 50*2동
- 대지 : 1000
- 가액 : 6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 및 토굴안내

♣시도시 사찰안내♣

- 총부지 : 1200평(남향)
- 대웅전(목조)24평, 삼성각(목조) 6평, 요사채 2층 방6칸
- 백화점, 법원 300M 거리 , 대단지 아파트 7000세대
- 총양도가 : 9억 3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강원도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 (아파트 밀집지역)
1. 본채 대지 70평 3층건물
 -1층 대중 공양간 50평ㅜ-2층 요사 및 종무소 : 방 3개, 마루 화장실 2개 부엌
 -3층 법당, 작은 종무소 - 시설 완벽함
2. 요사채 대지 30평 3층건물
 -각층 목욕 및 화장실 완비, 기타 장독대 및 대중 화장실 창고
-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포교의 최적지이며 도로와 접하여 홍보에도 용이함.
- 50년의 전통 사찰로써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 가액: 5억

010-3736-01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포교원임대
- 6층이며190㎡ 시설완비
- 보증금4천만원에월7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시내중심가 위치좋음
- 즉시법회가능함

010-7347-1010(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포함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사 찰 안 내

염에 맑은물이흐르고 붕어와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는 공기좋고 아름다운절

- 대지 포함 1,000평
- 사과나무, 호두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있음
- 위치: 경북 예천
- 가격 : 몽땅 3억

011-861-6252

사찰(급)안내

- 위치: 창녕 화왕산 군립공원내 사찰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능)
- 전세 1억 . 평수 208평
- 법당 15평, 목조단청, 산신각, 요사채 32평
- 방 4개 방마다 현대식 욕조완비

010-5037-6732

사찰부지안내

- 위치: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 내 천등산
- 지목 : 전 10년전 4단식 계단 토목공사완료
- 산세수려, 청정계곡, 토굴이 있음
- 평수 2400평
- 양도가 2억 5천만원

010-5547-8799

암 자 적 합

- 위치 : 경북 김천 대지 343평
- 퓨전한옥 30평(방3, 욕실2)
- 풍수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명당터
- 400여가구 면소재지 마을로 위쪽 한적한 곳
- 정남향, 원두막,황토방,텃밭 대형차 진입
- 스님 쉬는 공간, 암자, 선방 등 가능
- 시내에서 5분, KTX역 20분거리
- 주인직 3억3천만원(조정가능)

010-8477-497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 지하철 2 ~ 3분거리
- 조그마한 사찰 전세 및 달세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전화상담

010-5667-5453
010-3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의정부역 5분거리
- 3층건물의 1층, 30평, 마당 20평 법당, 삼존불, 산신각, 영단, 친견실, 공양간, 방2, 화장실2
- 보증금 3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천500만원
- 즉시법회. 절충가능

010-3293-3079

임법당안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대지 200평(문중땅)
- 건물 40평(지상권성립)
- 건물 5천 5백만원
- 법당 후원물품일체 2천5백만원
- 완벽하게 갖춰짐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010-6651-666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 해수욕장(방생지)
- 대지 640평
- 건물 1층 60평, 2층 약 60평
- 통나무건물
- 가액: 5억 5천만원 (공시지가 105만원)
- 대출금 3억 4천만(양도가 포함)
-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 사정상 급양도

010-7139-55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서구 비산동 (구, 대영학원근교)
- 삼존불,후불탱화
- 보증금 2백, 월 20만원
- 시설비1천 5백만원

010-7292-2582
011-292-25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아흔아홉골내
- 대웅전, 삼선각, 2012년 단청
- 평수 10000평 1만평
- 평당 20만원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010-5362-3370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5천만원

010-7242-09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유곡동 78-47. 주택 4층
- 시설완비
- 건평 100평정도,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 달세 없음
- 방문 오후1시 이후 가능

팩스 055)745-6633
전화 055)748-6345
010-9892-343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굴암리 202번지
- 규모 900평
- 가액: 평당 4만원 (40000)

011-286-7371
033)563-1666

신축작은절.안내

- 대지: 약 400평, 건평 30평
- 석조지장보살, 석조약사여래
- 석조보현보살, 석조문수보살
- 삼층석탑, 도량내자연석조경
- 전세금 7000 심야전기절충가
- 비구니승적합, 도량산세수려
- 충남아산, 공주유구중간지점
- 장난전화사절

010-3630-3235

임법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길곡면
- 창녕 부곡 하와이 관광특구 5분거리
- 건물1층 60평, 2층 30평
- 중증 30평, 마당 텃밭 502평
- 불교대학 가능(강당 아주 큼)
- 조경수, 유실수 (약 20종, 400그루 이상)
- 수학 가능함 스님 입원관계로 급 양도
- 가액: 4억 9천만원

010-3898-349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충남
- 종교용지 : 33000평
- 산세수려
- 도로진입
- 가액 : 25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신 축 사 찰 안 내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토지 5천여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터 안 내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화리
- 상면 소재지(서울에서 1시간거리)
- 서울에서 시내좌석버스 있음
- 버스도 진입가능한 도로 있음
- 가평군이 시(市)승격 예정지역
- 대지 170평 : 전(田) 265평 =435평
- 평당 70만원
- 사찰이나 요양원건립 최적지

010-9259-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 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 주차 40대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수 조절가능)

010-9889-3188

포교원안내

- 위치:청주 남주동 •3층건 3층
- 평수 약 100평, 법당 50평, 큰방 3개, 욕실, 사무실
- 삼존불, 요사채, 방2, 욕실, 주방, 3백등
- 집기시설 1억 이상 들었습니다
- 인연있는 스님이나 재가불자님께
- 전세 5천만원, 시설집기 3천만원에 드립디다.
- 임대기간은 10년이상, 옥상 방수 마음대로 사용
- 꼭 하실분만

010-5883-2255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관 사찰

- 경북 칠곡군. 과학대학근방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부지 약 2천 5백평
- 대출 1억 6천포함. 1억인수가능
- 총포함 2억 6천만원

010-7246-010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실평수 30평, 법당 24평
- 살림가능 , 상가 2층
- 가액: 보증금 8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784-842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대문 홍은동
- 3층 건물중 3층, 50평, 옥상전체 사용
- 삼존불, 후불, 108불 소불, 산신각 방 2, 접견실, 샤워실, 화장실
- 에어컨 2대포함,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700만원 / 월 70만원
- 시설비 4500만원

010-9231-4600

포 교 원 안 내

-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앞 대로변
- 1층 50평, 법당,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 시설완비, 주차장,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임대 및 양도하고자 합니다
- 보증금 12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삼존불 (4자) 신중, 산신 포함. 음향 모든 집기 일체
- 바로 법회 가능(2000만원)협의가능

010-3373-8004

암 자 안 내

- 경남 거제시~도심속에 산사를 풍기는 도량
- 암자 앞에는 대금산하에서 사시사철 내려오는 맑은 계곡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 한 곳으로 모이는 도량
- 거가대교 부산~거제 톨게이트
- 내리면 10분거리, 마당까지 주차진입
- 부처님과 탱화,집기류는 모두 가져갑니다
- 일반전원주택 123평,가액3억(절충가)
- 현시세 땅값만 평당 200만원 합

010-8538-4458
010-6374-4458

포교원 및 쑥뜸방안내

- 위치 : 일산, 3층건물 중 2~3층 전부사용(90평)
- 보증금 없음, 월세 70만원
- 시설비 3700만원(절충가능)
- 일산 인구밀집지역
- 비구니스님, 보살님이 운영하기 좋은 포교원
- 쑥뜸은 의료행기가 아니므로 누구나 할수 있음

010-2899-1477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홍익범패단 신입생 모집

기초과정 3개월
염불소리(천수경, 반야심경) 동음, 독경, 지도,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사찰운영법, 신도관리법, 각종예절법, 불교의 개론, 초발심 자경문

중급과정 3개월
종송, 도량석, 조석예불, 사시불광, 목탁불공, 신중불공, 시다림, 방생, 산신불공, 향수해례, 사성례, 거불, 상용영반(기제사), 봉송, 봉안게

상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청,39위, 상단, 지장청, 관음청, 삼보통청, 시련, 옹호게, 다게, 헌좌게, 행보게, 천도재, 사십구재, 각종의식 고혼소

특수과정 1년
불상점안, 생전예수재, 괘불이운, 수륙재, 설주이운, 다비식, 매장, 화장, 각종축문, 이장

작법과정 1년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모집인원	각과정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2월 중
개강일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개강후에도 수시접수하여 12월까지 마감
제출서류	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교육기간	① 기초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② 중급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③ 상급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④ 특수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서는 승려후보, 예비스님을 위하여 원하시는 종단 알선과 대덕큰스님을 은사로 소개하고 사찰, 창건의 지도와 수계 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강주이신 민지효 스님께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010-4466-3575)

장소 : 김해불교문화원 3층법당 / 주소 : 경남 김해시 흥동 7-5번지

한국불교홍익범패단
전화 055)345-0211 / 불교문화원 055)322-0088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대행 스님

모두 마음을 작게 쓰지 마시고 넓은 바다가 되어보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을 찾고 경전을 보기 이전에 내 마음부터 그렇게 단련을 해 가지고 경전을 한번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싱그럽고 광대무변한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경이라는 것도 교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스리면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교입니다. 그 경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자기의 마음 다스림에 의해서 결부돼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경만 읽으면 잘되는 줄 알아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고 대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차원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자배기가 있고 이렇듯이 말입니다. 사람도 종지와 같은 차원의 그릇이라면 간장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차원이 접시라면 그저 나물 무친 거밖에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바다가 돼라 이 소립니다. '그 불기둥에 놔라. 놔라' 하는 것은 한바다에 물 몇 그릇 붓는다고 두드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물 몇 그릇 퍼낸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맑은 물, 더러운 물, 구정물, 흙물, 핏물, 고름물 할 거 없이 다 들어가도 다 바닷물일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가라앉혀서 그대로 양식이 돼서 만생을 다 먹이고도 남을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다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넓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이 마음 하나가 지금도 여러분의 집을 점프해서 갔다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통에 밥해 놓은 것도 볼 수 있고 자기 가정에 무엇을 해 놨는지 볼 수 있듯이, 공부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해 놓고 살고 있고 무엇을 어디다 두고 한 것까지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빛보다 더 빨리 가서 보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 것을 보고자 해서 그것이 찰나에 봐질 때, 한 귀퉁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첨보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공부입니까?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한 찰나에 전체를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다. 한 찰나에 전체를 듣는 것, 바로 천이통도 도가 아니니라.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한 찰나에 수많은 사람의, 아니 곤충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숙명통,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 알고 남의 것도 다 안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이 다섯 가지가 다 도가 아니니라." 그러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남의 마음을 알면 뭘 하고, 보면 뭘 하고 또 어디서 온 줄 알면 뭘 하고,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 뭘 합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물 한 그릇을 목마른 사람한테 줄 수 없고 내가 목마른데도 (컵을 들어 물을 드시고) 이렇게 먹을 수 없다면 그건 도가 아닌 겁니다. 물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걸 갖다 먹을 줄 모른다면 허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컵을 들어 보이시며) 선뜻 집어서 먹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어야만이 도라고 했습니다. 오신통 안에서 벗어나서 오신통을, 다섯 가지를 그냥 자유스럽게 굴려야만이 누진에 속합니다. 이름해서 누진통이라고 그랬는데 누진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 아닌 도죠.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여러분이 비를 맞고 이렇게 왔는데도 뭐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하거나, 그냥 푸대접을 하고 본체만체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한때는 비가 억수같이…, 이거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굵은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려와서 그냥 막 물이 이렇게 차서 흘러내리는 숲에 앉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즐겁고 좋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밀짚모자를 썼는데 물이 줄줄 흘러서 그냥 그 밀짚모자가 이렇게 접혀지면서 물이 막 흐르니까 아, 그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말입니다. 물이 살 속으로도 안 들어가고 뼈 속으로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마음 속으론 전혀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도 하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데에 인내를 기를 수도 있고 참을성도 기를 수가 있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 모두가 공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얍삽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안 와야지.' 한다면 허, 비가 안 오기만 하면 뭘 합니까? 비가 오는 맛도 알아야 하고 안 오는 맛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되는 거를 알면 안되는 것도 알아야 모든 거를 대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산을 갔다면 갔다가 올 줄도 알아야지, 만약에 차를 타고 갔다면 내릴 줄도 알아야지, 타고 돌아다닐 줄만 안다면 그거는 팡입니다. 그 인생은 아주 팡이에요. 차를 타고 갔으면 내려서 걷기도 하고 또 탈 줄도 알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예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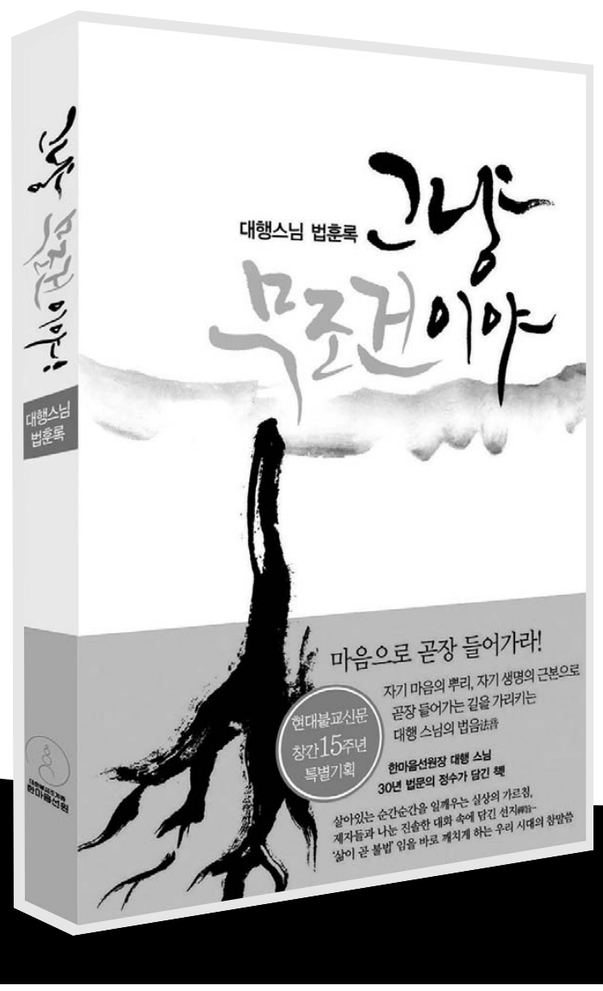
너무 오래 많이 하면 또 엇갈려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갈는지 모르니까요, 단 하나만 쥐고 모든 거를 잘 기억하셔서 재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흉내를 내다가 보면 진실이 돼 버립니다. 진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십시오.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경상남도 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위 친구들로부터 『대행전집』 제1권 구도기를 읽고 마음공부를 해 보고 싶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마음공부 이전에 제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을 큰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부양해야 될 가족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의사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벌써 1년을 견뎌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천수를 누리면서 제 임무를 다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큰스님: 여러분은 살려고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진짜 살 수 있어야 몸도 살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살 수 없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여튼 주인공 뿌리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마음으로 진실하게 자기 영원한 뿌리를 믿고 갈 수 있어야

☞ 21면에서 계속

너한테 달려 있으니까, 당신한테 달려 있으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모든 걸 관하세요. 여기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거를 잘 여쭤 봐서 잘 실천해 나가시면서 스님네들한테 자주 가세요. 아시겠죠?

질문자2(남): 두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선원과 인연을 맺은 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내자의 도움으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만 도리어 신심이 떨어지고 마음이 무기력해져 경북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가 보니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기분도 좋고 살맛이 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허허허….

질문자2(남): 저는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50명 선생님과 1500명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참 시원하십니다. 정말 시원해서 좋습니다. 어린 싹들한테 일러 주실 거는요, "모두가 네 영원한 뿌리에서 형성됐다는 걸 꼭 알고, 네가 너를 다스리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대인이 될 것이다."라고 꼭 일러 주십시오.

질문자3(여): 스님! 이렇게 친견하게 돼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두 사람 다음 주 일요일에 결혼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막…. 저희들이 결혼해서 양가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결혼할 때도 이런 말을 듣겠죠. '두 사람이 서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대해 줘라. 그럼으로써 따뜻하게 하나로 불이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고 자꾸 마음이 엇갈리면 돈도 '저런 집에 들어가 봤자 내가 고생을 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다. 내가 나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탓이지 누구의 탓이겠나?' 하면서 내 탓으로 돌려야죠.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자기요 못한 것도 자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상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보세요. 그러면 복이 저절로 들어오고 자손들을 낳더라도 아주 착하고 의지 있고 밝은 아들과 딸들을 낳아서 이 나라에 정말 일꾼이 되고 정말 큰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화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둘이 아주 오늘부터 '주인공, 너만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너만이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대대손손이 잘 살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집안도 화목하게 될 겁니다, 모두.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그렇게 해 보세요. 실천을 해 봐야지 알죠.

질문자3(여): 큰스님, 감사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 여러분은 살려고만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 마음이 진짜 살 수 있어야 몸도 살 수 있는 거지
> 마음이 살 수 없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몸도 죽습니다.
> 그러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여튼 주인공 뿌리 너한테 달려 있으니까,
> 당신한테 달려 있으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 모든 걸 관하세요.

큰스님: 수원에 오 형제가 사는데 그저 만나면 작대기를 가지고 들이싸웠대요. "이놈, 이놈의 새끼! 너만 잘살려고 그러느냐." 하고 그냥 막 쫓아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도리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서로 의합해졌는지 뭐, 오 형제가 부모도 잘 섬기고 그냥 아우도 돈을 마련해서 유학 보내고 이렇게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 점점 재산이 붇고 화목해져서 점점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마음을 크게 쓰질 못하고 작게 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간장 종지밖엔 안 되기 때문에 간장밖에 담길 수가 없죠. 이 뜻을 여러분은 다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그릇이 크면 아무거나 다 담을 수가 있지만 그릇이 작아 보세요, 거기 뭐가 담기나. 오늘부터 꼭 그렇게 넓은 바다가 되세요. 그러면 눈에서 눈물 안 흘리고도 살아요.

질문자4(여): 이렇게 뵈옵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작년에 건물을 지었는데 올 2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임대가 되지 않아서 무척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어야 물건값도 주고 건축비가 충당이 되는데 세가 나가지 않아서 어음까지 쓰고 있습니다. 스님의 크신 법력으로 한 마음 내셔서 도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큰스님: 그것도요, 진짜로 믿으세요. 나무들이 '내 밑에는 바로 내 뿌리가 달려 있구나.' 하고 진짜로 자기 뿌리를 믿는다면 나무가 푸르르게 살 수 있고 일들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댁도 진짜로 '내 밑에 뿌리가, 내 깊은 마음속에 내 뿌리가, 바로 주인공 뿌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 그냥 거기다가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놓으세요. 정말이지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다 놓으십시오.

질문자5(여): 스님을 이렇게 친견하게 돼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자식놈이 병원에 가면 신경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저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중얼중얼하고요, 또 절에도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제정신을 바로 차리도록 스님께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큰스님: 부산지원에 나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질문자5(여): 제가 공부를 옳게 잘 못합니다만 한 2년 다녔습니다.

큰스님: 열심히 하세요. 공부한 시간이 많든지 적든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자기 영원한 뿌리, 자기를 믿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부산지원에 나가서 배우세요. 스님네들한테 묻기도 하구요, 회장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세상이,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분수 없이 놀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모르고 중심을 세울 줄 몰라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들에게 관하는 걸 가르치세요. 아주 어린애 적부터 돌에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요.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 그것은 더 큰 보배인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질문자6(여):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의 어머님이 방에다가 신당 같은 거를 모셔 놨었는데 주인공에 관한 덕으로 그 신당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늘 '주인공! 어머님이 저걸 모시는데 저걸 없애야 될 거 아닌가. 주인공 네가 본인 스스로 처리하게끔 해라.' 이러면서 관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어머니는 주인공 찾으면 되지 이런 사사로운 미신을 지키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듣기 싫어하시면서 "절에 가지 마라."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 계시는 데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본인 스스로 저 신당을 없애게끔 해라.' 하면서 늘 관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추석 앞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의 시숙 되는 분이 좀 말썽을 피우고 그러는데 저의 어머니한테 좀 안 좋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무슨 마음이 일어나셨는지, 그러고 한 3일 후에 스스로 그걸 다 태워 버리고 다 없앴습니다. 다 주인공 덕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큰스님: 그래요. 모두 마음의 근본, 정신계에서는 아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가 주장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신당을 모셔 놓든지 하면 자손들한테도 해롭고 또 죽어서 몸이 없어진대도 그 습이 남아서 자식들한테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유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절대로 집안에다가 모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꾸리쟁이가 되는 거, 타의에서 구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다 없애고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그 각오와 믿음이 진실해야만이 우리가 앞날에 있어서 내 몸과 가정을 잘 이끌 수 있고 사회, 국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6(여):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어머님이 제가 말하는 것마다 따라 주십니다. 한 열흘밖에 안 되었는데 주인공 공부를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큰스님: 마음이라는 게 악신도 될 수 있고 선신도 될 수 있어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악신도 내가 마음을 선하게 가지면 그 악신이 화해서 바로 선신이 돼 버리고 말거든요. 이게 이렇게 좋은 공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질문자6(여):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몸이, 다리 팔 목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팠었는데 제가 9월 5일 안양에 가서 친견하고요, 큰스님께서 마음을 내 주셔서 몸도 지금 많이 나았고요, 주인공이라는 자체를 열심히 관하니까 많이 녹는 거 같습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가르침을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자기가 자기 일 하는 거지, 뭐. 허허허….

사회자: 질문자가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청년회 법우가 큰스님을 생각하면서 밤을 새워서 만든 백팔 개의 꽃을 올리겠답니다.

법우: 스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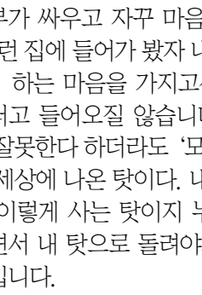
큰스님: 백팔 개라면 전체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시고) 마음을 실어서 마음에다 전달한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합장하시며) 하여튼 감사합니다. 마음 실린 꽃 백팔 개는 불기둥에 타 버렸습니다. (합장하심)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신국판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행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비룡정사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1. 개강 : **2013년 10월 4일(금) 오후 1시**
2013년 10월 5일(토) 오후 1시
2. 4회 과정 선착순 각 5명 (수강료 120만원)
3. 누구나 쉽게 배우고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개인지도 1. 기문둔갑, 성명학, 빙의퇴마와 최면요법
2. 2명이상 지방출장지도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전화 011-772-4606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이 적용됩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중도', 올바른 역사관의 전제조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우리나라 초 · 중 · 고생들의 역사인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다. 학생들은 국사를 필수교과목으로 교육 받은 세대와 현격히 변별되는 역사인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는 일본의 독도, 중국의 동북공정과 이어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서해의 제7광구를 비롯한 해양영토 경계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정책의 여진 속에서 관망만 해오고 있었다. 일본과 중국 정부가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불만을 소극적으로 제기해 왔을 뿐 정작 우리 학생들의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초 · 중 · 고교의 역사교육이 부실하다는 인식이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처방은 '현재의 중3부터 대학입시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겠다' 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시험을 치르겠다고 것으로만 학생들의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과서 간행 그리고 역사 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본은 '독도' 와 '조어도' 등의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만들어 자국의 초중고교생들에게 교육을 시켜가고 있다. 그러면 주변국들의 이러한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할까?

대외적으로는 '대마도' 한국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어도' 와 '해양경계선' 에 대한 굳건한 수복의지를 천명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대마도를 자주 찾아가고 이어도와 해양경계선에 어떠한 설치물을 세워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학교 역사교과서를 놓고 재개되고 있는 좌우 이념공방에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야만 하는 것일까?

새는 두 날개로 날고 수레는 두 바퀴로 굴러간다. 범어 '듀카' (고통)의 어원은 굴러가는 두 바퀴가 균형이 깨어져 삐거덕거리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한 바퀴가 찌그러져 있거나 부서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과 소리 등이 '불만족' 스럽고 '불안정'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불만족과 불안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도의 시각' 즉 가장 올바른 길(中道)이라는 균형감각이 요청된다. 최근 우리의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역시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좌편향 혹은 우편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수레바퀴 역시 올바르게 나아가기 어렵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탄탄한 균형과 든든한 동력이 뒷받침된 수레바퀴여야만 일본과 중국이라는 대국과 공존하면서 전진할 수 있다. 탄탄한 균형과 든든한 동력은 '역사를 보는 올바른 눈' 과 거기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간행 그리고 그것에 의거한 '올바른 역사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교학사 간행 〈한국사〉의 검정 통과를 두고 좌우 이념에 입각하여 제기되는 논쟁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우리가 안고 있는 대내외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시선을 국내로만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있고, 한국의 우파들은 오랜 경험과 통찰로 자신들의 시선을 세계와 국제로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논리에 휘둘려 끌려다니고 있다.

때문에 우파들은 민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무지하고, 좌파들은 민족의 의미와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더욱이 좌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의미와 가치를 도외시한 채 친미와 친일의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미국에 앞서 월남 파병을 제일 먼저 창안한 이가 이승만이며, 민족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장 강조한 이가 박정희라는 팩트 즉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해방 이후 분단의 시점에서 김구를 중요시하는 것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미래 통일한국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통찰하는 예지가 급선무일 것이다.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는 중도 지혜의 사관 확립과 균형감각에 기초한 역사교과서의 간행 그리고 역사 교육의 실행이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
일본 인터넷 불교언론
한국 템플스테이 체험기

모든 것이 새로웠던 한국의 산사들

템플스테이는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관광자원이다. 산사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는 같은 불교문화권인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 인터넷 불교 언론에 개제된 '대한민국 템플스테이 체험기' 를 번역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한국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 수는 연간 약 10만 명. 2012년 방한한 외국인 수 1100만 명을 놓고 본다면 110명 중 1명은 한국 불교를 체험하러 오는 셈이다.

일본과 한국불교는 함께 대승불교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독경, 염불, 건축 양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6월초, 한국사찰의 초청을 받아 직접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보니 공통점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저녁에 도착해 수련복으로 옷을 갈아입으니 스님께서 사찰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다. 절하는 법, 경내 이동시 걷는 법 등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짧은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보았는데 부모와 자녀 간 함께 참여해도 괜찮겠구나 싶었다.

그 후 바로 저녁 예불에 참석했다. 법고와 운판, 범종의 음색이 독특했고 아름다웠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선 불교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지도하에 타종을 해보기도 했다. 그 울림이 몸에까지 전해졌다.

식후 차담시간에서, 혜행 스님은 일본불교와 한국 불교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불교는 학문, 수행, 기도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일본에 유학해 공부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일본 불교는 학문으로 치자면 제일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수행 면에서는 그 전통이 한국불교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밤 9시 취침에 든다. 텔레비전, 신문이 없으니 자는 것 말고는 달리 할게 없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예불에 참석했다. 월정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염주 만들기다. 108배를 하면서 염주를 하나씩 꿴다. 일본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몸은 힘들지만 염주를 완성해 놓고 보니 기쁨도 더 컸다.

월정사를 떠나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향했다. 신라 676년 의상대사에 창건된 고찰이다. 의상 대사는 일본 고산사에 진영이 소장돼 있다. 낙산사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가히 절경이다.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은 월정사와 거의 같지만 넓은 경내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월정사가 땅과 숲이 어울려진 템플스테이라면, 낙산사는 물과 하늘이 어울러진 템플스테이다.

마지막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진관사**. 도착하니 신도 한 분의 49재가 진행되고 있었다. 목탁을 두드리는 염불 소리가 어쩐지 음악처럼 들린다.

이곳은 물, 바다, 숲, 산 등을 방황하는 영혼과 아귀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공양하는 수륙재 가 유명하다. 한국 불교가 사자(死者)를 위한 의식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내를 둘러보다 2009년에 진관사에서 발굴된 항일운동자료와 태극기를 보고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이윽고 이어진 공양은 놀라웠다. 마치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축하연 같았다. 야채 튀김, 두부, 산나물 무침, 약식, 죽, 구수한 된장 등 스님께서 팔을 걷어 부치고 만든 음식을 보니 참가자들이 이 음식을 먹고 싶어 절에 다시 오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해할 것도 같았다.

3곳의 사찰 방문을 통해 템플 스테이에 독특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스님들이 참여해본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아직 모든 사찰에 일본어 안내 책자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일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 사찰도 소수라고 관광공사 측은 말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한국어 이해는 필수다. 예약 또한 직접 사찰에 전화를 하거나 메일로 신청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측면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움직임이 있고 역으로 일본불교를 배우러 온 한국인도 많은 줄로 안다. 한일불교교류협회의 역사도 길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교 발전에 유익할 뿐 아니라 한일 우호 관계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일본 불교타임즈

社說

기부 문화 막는 세금정책 개정해야

2012년 발표된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문화는 세계 최하위다. 상위권에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이 올랐지만, 한국은 극빈국인 수단과 가나보다 못한 45위였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나눔의 문화에는 아직도 인색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안 좋은 한국의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금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9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 따르면 지정, 종교단체 기부금에 2500만원의 한도를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8월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재개편안' 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금 감면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도록 했다. 조특법이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를 막았다면 세제 개편안은 활성화되고 있는 중산층 기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이다.

이웃종교와 사회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불교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유수의 복지재단과 사찰, 문화단체, 모금기관, 종립학교들이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법정 기부만을 공제로 인정하는 것도 문제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단체를 통한 기부가 이뤄져야 하는 데 이런 상황이라면 풀뿌리 모금단체들의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현 정부가 약속했던 사업들을 위해 반발이 많은 직접세 대신 기부금 등 기존 혜택을 줄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이 같은 세정은 싹을 틔웠던 한국의 기부문화를 고사시킬 수도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의견을 경청해 조특법과 세제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

포교도 급변하는 세상처럼 신개념으로

세상이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맞춰 불교 포교 역시도 변해야 한다는게 일선 포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와는 상황이 틀리지만 일본 스님들도 이런 세태에 순응한 것인지 포교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문관을 설치한다든가 지우개 조각을 나눠준다든가 밴드를 조직한다든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도쿄시내, 그것도 자본과 소비, 욕망이 집약된 38층 쇼핑몰안에 단기 프로젝트성 '불교 카페' 를 개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불교에도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베스트셀러 '만행' 의 저자인 하버드출신의 현각 스님이 9월 9일 인터넷에 'Mirror of zen' (선가귀감) 이라는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불교 포교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리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포교의 눈높이를 젊은 감각에 맞춘 이 동영상은 크리스틴 슈미트너라는 다큐멘터리 겸 CF감독이 연출했다.

이 동영상은 염불과 음악이 감각적으로 가미된 일종의 뮤직비디오다. 16분 길이의 영상에는 스님의 일상이 담겨져 있다. '깨어있음' 의 선적인 상태를 새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고민한 것이다. 독일 뮌헨서 '불이선원' 을 개원해 서양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포교중인 현각 스님이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의 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참 고민하다 만든 결과물이다.

현각 스님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방편이 14년 전에 만행이라는 책이었다면 지금은 비디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을 부각 시키는 게 아니라 선승의 하루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형식의 동영상이 공개되자 예상대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숨이 멎을 정도로 감동적이라는 찬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한국불교도 이젠 현각 스님처럼 신개념 미디어 포교에 힘써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 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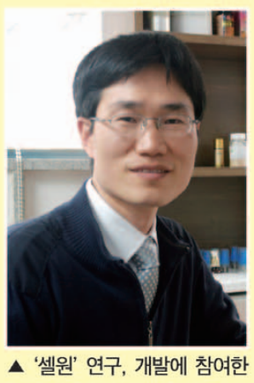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창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